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沈生傳>의 구조와 의미지향성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향 남

<沈生傳>의 구조와 의미지향성 분석

2010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향 남

<沈生傳>의 구조와 의미지향성 분석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국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향 남

김향남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ABSTRACT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Orientation of Meanings in Shimsaeng-jeon

Kim Hyang-nam

Advisor : Prof. Kim Su-jung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Lee Ok (1760~1815) also known as Munmuja was one of the men of letters in the late Chosun and an outstanding author of the Korean literary style, 'Paesasopum (unofficial histories and miscellaneous notes).' Beyond the oppressive ideology and literary style of 'seonggyeong-hyeonjeon (Confucian scriptures and interpretations)' which supported the feudal dominance, Lee Ok vividly described various aspects and diverse characters in reality and aspired to overcome the narrowness of the feudal ideology. However his critics rejected and condemned his literary style as unconventional, disrespectful and strange which challenged the feudal order. As a result he led a misfortunate life completely deprived of any kind of opportunity to achieve success in society. Nevertheless he never gave up his unique literary style which highlighted the value of the 'margin' that could not be found in the 'center.' Here, it can be said that he eventually functioned as a bridge to the modern literature.

Shimsaeng-jeon is one of the 25 collections he left behind and it describes a

tragic love story between Shimsaeng, an aristocrat in Seoul, and a lower class (jungin) woman. It is the most representative work of Lee Ok, in which the romantic love as a law of nature was described along the tribulation and challenge of the changing society. Simultaneously it makes an observation for the contemporary life and social conditions objectively from a distance.

Centered on the development of activities of the main male and female characters, the narrative structure of Shimsaeng-jeon proceeded from their first encounter, waiting, forming a relationship, separation to death in this order. Here, the process from the encounter to the relationship formation was significantly extended compared to the process from the separation to death. The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formation process was described by the meticulously calculated technique, where the successful narrativization with suspense was achieved by describing psychological conflicts of the lower class (jungin) woman fiercely unfolding in her inner world prior to her ultimate acceptance of the aristocrat's courtship.

Such processes of narrativization, from the encounter to the relationship formation, and from the separation to death, were set as a reciprocal confrontation. The first half of the work, that is, from the encounter to the relationship formation, was structured with suspense to intrigue reader's interest and attention.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half of the work, that is, from the separation to death, was structured to disperse focus to the external, hence extending time and space and presenting events as a summary. The true love was realized as a natural manifestation of the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the first half of the work. Meanwhile a narrative contrast was presented in the second half by showing the main characters who failed helplessly against the rigid social customs. Here, the author explicitly

displayed contemporary social conditions through the confrontational narrative structure.

The main character Shimsaeng in *Shimsaeng-jeon* succeeded in forming a relationship with the woman driven by his passion as a good natured man of refined taste, however he became passive and irresponsible for the consequential events. It reveals the consciousness of the ruling class thoroughly internalized. However, his psychological change can be identified when he changed his path upon receiving the note left behind by his dead lover. It indicates that Shimsaeng is not a flat character remaining passive within the existing value system, but a progressively developing character.

The female main character also felt connected upon the first encounter with Shimsaeng but she acted with utmost caution by not accepting his courtship readily. It was due to the fact that she predicted unfortunate consequence based on the cool-headed perception on the reality. However she finally made a courageous decision following her genuine emotions and such action verifies her underlying spirit of challenge for the world.

From the part of 'Maehwa-oesa' critique, a distraction with rather abrupt story occurred in contrast with the narrator's approach in the part of main events. It functioned as a buffer to lessen the intensity of the message of this work. The romance novel with tragic overtone leaves a profound resonance in general and encourages readers to reconsider social conditions which affect the failed love between the main characters. Accordingly, in spite of the distortion of the subject matter in its critical notes, *Shimsaeng-jeon* can be evaluated as the work which valued genuine human emotions and criticized the absurd social conditions interfering with such genuine emotions. Moreover the author conjured up a world he aspired through the active female character possessing

the spirit of challenge and the inner world of the male character with changed perception.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방법	1
2. 연구사 검토	3
II. 이옥의 삶과 문학	7
1. 탈중세적 변화기의 문풍	7
2. 이옥의 문학세계	13
1) 해체적 시선	13
2) 眞의 문학관	19
III. <심생전>의 구조 분석	25
1. 서사의 구성	27
1) 결연 과정의 확대	30
2) 서사의 대립 구조	34
2. 갈등의 양상	38
1) 인물의 내적갈등	39

2) 갈등의 심화	40
IV. <심생전>의 의미 분석	43
1. 등장인물의 태도와 의미 지향.....	43
1) 남주인공 심생	43
(1) 진정을 향한 충동	44
(2) 가치에 대한 再考	45
2) 여주인공 처녀	47
(1) 결연에 대한 신중성	48
(2) 현실에 대한 도전	51
2. 서술자의 태도와 의미 지향	53
1) 서술 시각의 양면성	53
(1) 발전적 인물로서의 심생.....	53
(2) 도전적 인물로서의 처녀	55
2) 매화외사 평에 나타난 의미 지향.....	57
V. 결론	64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文無子 李鈺(1760~1815)은 조선후기의 한 文士로서 우리나라 稗史小品體 문학의 뛰어난 작가였다. 중세적 질서를 지탱하는 聖經賢傳의 사상 및 문체에서 벗어나 현실의 다양한 면모와 각양각색의 인물군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으며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통 문체가 아닌 데다 봉건 질서를 위협하는 불경스럽고 기이한 문체라 하여 배격되었고 그 때문에 出仕의 길이 완전히 막혀 버린 불우한 문인이었다.

이옥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전란의 후유증과 지배층 내부의 균열, 서민의식의 성장 등 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중세 봉건 지배 질서의 해체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한편,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체반정과 탕평책, 훈민시조의 보급, 각종 행실도류의 간행 등 이완되어 가는 체제를 회복·유지코자 하는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던 과도기라 할 수 있다. 慣習, 節義 등 사회적이고 집체적인 담론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욕망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쳐드는 시기였으며 인정물태, 남너지정 같은 개인적 욕망을 다룬 문인 지식인들의 담론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옥은 이러한 시대의 경사 속에 소품체 작품을 통하여 인정 풍물의 이모저모를 참 [眞] 그대로 묘사하면서 종래의 성리학적 사고와 순정문학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근대적 문학정신에 가교자 역할¹⁾을 하였다.

이옥의 절친한 벗인 瀟庭 金鑣(1766~1822)는 그가 “長篇·大文·短律·小関을 막론하고 원만하지 않는 말이 없었고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없었다”²⁾고 평한 바 있다.

1)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 『완역 이옥전집』1, 휴머니스트, 2009, p.9.

2) 전집2, p.491. “毋論長篇大文, 短律小関, 無不可圓之語, 無不可厭之字”

이옥은 賦, 書, 序, 跋, 記, 論, 說, 解, 策, 文餘, 傳, 俚諺, 戲曲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작품을 남겼으며 창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물론 자신의 문학세계에 대한 소신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沈生傳>은 그가 남긴 25편의 傳 가운데 하나로, 서울 양반 계층인 심생과 중인층 여자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질곡 속에서 天道之理로서의 男女之情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시정세태에 대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옥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문학이 작품 내적인 세계를 통해 작가의 눈에 비친 세계상을 반영하고 작가의 세계인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심생전>은 그러한 작가의 의식이 가장 잘 투영된 작품으로 보인다.

<심생전>은 이미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작품이 갖는 의미가 매우 다층적이어서 논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고문 일변도의 문단에서 독자적 창작 태도로 일관하여 자신의 문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옥의 문학 세계와 그 문학 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심생전>을 텍스트로 삼아 작품의 구조적 특성과 작가의 의미지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옥 문학이 획득한 문학사적 의의를 파악해 볼 것이다. 작가가 처한 시대배경과 그 사상을 검토하는 과정은 작품연구의 선행요건임을 고려하여 작가의 생애와 그 문학 세계를 먼저 살피고 이어 작품을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이옥 문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여겨지는 몇 작품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어 본격적 논의라 할 수 있는 <심생전>에 대해서는 작품의 외형적인 특성, 즉 서사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그 구조 속에 내재된 작가의 태도 및 意味志向을 살피도록 하겠다.

패사소품체의 집적물이라 할 수 있는 25편의 傳 작품엔 이옥의 세계관과 전망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³⁾ 그 가운데서 <심생전>은 비극적 사랑을 초래한 원인

3) 이옥의 傳은 크게 불합리한 사회 세태의 언급을 통한 현실비판과 하층민·열녀의 이야기를 통한 인간성의 긍정(인간평등의 추구)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장봉사전>은 상층의 사치를, <각로선생전>은 본질의 개혁없이 현상의 부분적 합리화에 안주하는 지배층의 허위의식을, <유광억전>은 과거제도의 부패와 타락상을, <성진사전>은 관리의 무능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타락상을, <최생원전>은 무당의 흑세무민을, <이

으로서 신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조선 후기 사회현상은 물론 작가 의식의 志向性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 즉 작가 이옥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이옥의 작품은 자신의 개인문집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蕓庭 金鑣가 자신과 교분이 있던 문인들의 작품을 별도로 엮은 『蕓庭叢書』⁴⁾ 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는 이것저것 분산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옥의 글은 방대한 양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지 2백여 년 동안 한 번도 체계적으로 편집된 적이 없었고 인쇄를 겪은 적이 없이 묻혀 있었던 셈이다.

이옥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가원 교수가 『이조한문소설선』에서 이옥의 전 25편 중에서 15편을 해석한 것이 최초였다.⁵⁾ 이후 본격적 연구는 1977년 김균태 교수의 「이옥연구」⁶⁾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그는 작가의 생애와 사상, 작가의식을 검토한 후 그것을 <심생전>, <유광역전>, <이흥전> 등의 작품에 대입하였다. 계속하여 「이옥의 문학기론과 작품세계의 연구」⁷⁾를 통하여 作家意識, 詩, 詞賦, 散文, 文學

흥전>은 자신들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허위의식을, <심생전>은 신분질서의 모순을 각각 비판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열녀전 형식을 취한 <상랑전>, <열녀이씨전>, <수칙전>, <생열녀전>, <협효부전>, <신아전>, <문묘이의복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작품은 길으로는 忠·信·烈 등의 유교적 덕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하층민이나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진솔한 인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못한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를 지적하는 작품들이다.

4) 『蕓庭叢書』에 수록된 이옥 문집의 종류는 모두 11편이다. 이옥의 사후에 김려가 편집하여 『담정총서』에 수록한 것으로 이 총서에는 『문무자문초』, 『매화외사』, 『화석자문초』, 『중흥유기』, 『도화유수관소고』, 『매사첩언』, 『봉성문여』라는 이름으로 된 8종의 각종 산문집, 『경금소부』와 『경금부초』라는 장·단편의 賦集이 수록되어 있다.

5) 이가원, 『이조한문소설선』, 민중서관, 1961.

6) 김균태, 「이옥연구-작품에 나타난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論 등 이옥 문학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언급함으로써 이옥 문학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그는 남아 있는 이옥 관련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그의 생애를 추정하고 재구성하였다.

이옥문학에 대한 연구를 관심 분야별로 나누어 본다면 傳문학에 대한 연구,⁸⁾ 작가의식에 대한 연구,⁹⁾ 詞賦나 운문에 관한 연구,¹⁰⁾ 산문의 미적특질에 관한 연구¹¹⁾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이 중 傳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편인데 전에 대한 연구를 더 세분해 보면 이옥의 전을 소설로 인식하여 그 구조를 살핀 논문,¹²⁾ 이옥의 전에 수용된 설화에 관심을 두고 그 설화의 수용양상을 살핀 논문,¹³⁾ 이옥 전의 양식과 그 특질을 알아 본 연구,¹⁴⁾ 가 있으며 서술구조의 특징과 내용의 특성을 살펴본 논문,¹⁵⁾ 패사소품의 특성을 살펴보고 주제구현양상을 설명한 소인호의 논문,¹⁶⁾ 주제와 입전대상에 나타나는 풍자양상을 살펴본 박성훈의 논문,¹⁷⁾ 열녀전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살펴본 정미숙, 임유경의 논

7) 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8) 현재까지 축적된 이옥 전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유경, 「이옥의 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김충복, 「이옥소설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박성훈, 「이옥의 전에 나타난 풍자연구」, 『한문학논집』제2집, 단국대한문학회, 1984.

김상렬, 「이옥 전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이상덕, 「이옥 전의 양식적 변개양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홍룡희, 「이옥 전과 심생전 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이홍우, 「이옥의 전문학연구-설화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정미숙,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소인호, 「이옥 전의 특성과 작가의식의 구현양상」, 『송실어문』16집, 송실어문회, 2000.

임정현, 「이옥 전 작품의 양식적 특성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9) 허종진, 「이옥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수용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성희, 「이옥의 전에 나타난 작가의식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0) 김은희, 「이옥의 이언 소재 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1) 이현우, 「이옥 소품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2) 김충복, 위의 논문.

13) 이홍우, 위의 논문.

14) 이상덕, 위의 논문.

임정현, 위의 논문.

15) 김상렬, 위의 논문.

16) 소인호, 위의 논문.

문¹⁸⁾이 있다.

한편 이옥 傳에 대한 개별 작품론은 주로 <심생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생전>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이신성, 전수연, 홍룡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배경의 설정, 만남, 사랑의 행각, 이별, 죽음으로 나누어 보고 다른 애정소설과 비교 고찰한 논문¹⁹⁾을 비롯하여 이옥 전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심생전>이라는 구체적 작품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 홍룡희의 논문,²⁰⁾ 전 양식의 수용 양상과 타 서사양식과의 비교를 통해 <심생전>의 양식적 특성²¹⁾을 다룬 논문이 있다. 이어서 인물을 통한 작가의식 고찰²²⁾과 제재적 맥락과 서사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²³⁾ 전기소설의 맥락²⁴⁾과 애정소설²⁵⁾로서 연구되기도 하였다. <심생전>을 소설미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신희경의 논문²⁶⁾ 그리고 <심생전>의 서술시각과 작가의식을 규명한 논문²⁷⁾이 있다.

이옥 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의 산문 전체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²⁸⁾와 더불어 2001년 『역주 이옥전집』이 3권으로 묶여 나왔고²⁹⁾ 최근에 정우봉에 의해 작자가 이옥이라고 밝혀진 <백운필>과 김영진에 의해 소개된 <연경>을 포함한 『완역 이옥전집』 5권³⁰⁾을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에서 재출간함으로써 꾸준히 그 관심이 이어져 오고

17) 박성훈, 앞의 논문.

18) 정미숙, 앞의 논문.

임유경, 앞의 논문.

19) 이신성, 「한문 단편 심생의 연구」, 부산국어교육학회, 어문학교육, 제2,3집, 1980.

20) 홍룡희, 「이옥 전과 심생전 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1) 전수연, 「심생전의 양식적 특성」, 『이화어문논집』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7.

22) 이상구, 「심생전의 인물형상과 작가의식」,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5.

23) 정하영, 「심생전에 나타난 제재적 맥락과 서사방식」, 『한국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한국고소설학회편, 아세아문화사, 2001.

24) 소인호, 『한국전기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003.

25) 채연식, 「조선조 전기소설 연구-애정류소설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26) 신희경, 「심생전 연구」, 『돈암어문학』제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27) 김미현, 「심생전의 서술시각과 작가의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8) 김진균, 「이옥의 작가적 자세와 탈중심적 글쓰기」, 『한문학보』6, 우리한문학회, 2002.

신익철, 「이옥문학의 일상성과 사물인식」, 『한국실학연구』12, 한국실학학회, 2006.

심경호 역, 『선생,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십시오』, 대학사, 2001.

29) 이옥 지음, 실시학사고전문학회 역주, 『이옥전집』, 소명출판, 2001.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 전집에 실려 있는 원문과 번역을 중심 자료로 사용했으며 이 전집에서 인용된 부분은 권과 쪽수로만 표기하기로 하겠다.

30) 이옥 지음, 실시학사고전문학회 엮음, 『역주 이옥전집』, 휴머니스트, 2009.

II. 이옥의 삶과 문학

1. 탈중세적 변화기의 문풍

세계사적으로 볼 때 18세기는 근대적 조짐을 보이는 시기였다. 서구 중세의 형이상학적 관념이성은 합리주의적 계몽철학에 자리를 내주었고 이들은 삶과 세계의 질서를 과학적 질서로 재편하고자 했다. 종교의 속박, 이념의 굴레를 박차고 나와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고 구원의 미명 아래 자행된 온갖 우상과 폭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자리에 朱子主義를 두면 조선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³¹⁾ 18세기의 조선 역시 당시의 정치철학이었던 성리학적 규범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시기였다. 서구 계몽주의가 구시대의 정신적 권위와 사상적 특권과 제도에 반대하여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창하고 이성의 계몽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진보와 개선을 꾀하려 했듯이 18세기 조선은 주자학의 세례를 벗어던지고 實事求是의 합리성과 주체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옥이 활동하던 당시는 壬·丙 양란을 겪은 뒤라 국력은 약화되었고 정치·경제·사회 전면에 걸쳐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전란 뒤의 사회상태의 악화 등이 양반 관료간의 분열과 파쟁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일반 민중은 소위 양반들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서 자각하여 자주적 생활로 돌아서게 되었다.³²⁾ 조선왕조를 확립시키는 정치철학이었던 성리학의 이념이나 그 규범은 이제 사회의 지도이념으로서 기능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실학발달의 배경이 되었으며 실학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의 생산활동은 농업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상업이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31)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p.52.

32) 박성의, 『한국고대소설론과 史』, 집문당, 1986, p.338.

즉, 대동법의 실시로 금속화폐가 유통되고 상업인구가 급증하여 非市慶 상인 중심의 국내상업이 발달하였다. 상업경제의 발달은 서민들의 부의 확대를 가져왔고 그 결과 새로운 서민계층의 대두와 서민문화 발전이 야기되었다.

또한 18세기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신문물이 물밀듯 들어오던 시대였다. 문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때까지 금기시되었던 소설, 야담, 야사 등의 책들이 중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고 문장은 반드시 선진양한을 본받고 시는 반드시 성당을 본받아야 한다(文必秦漢, 詩必盛唐)는 당시의 불변의 진리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古文에서 벗어나 시정의 세태를 백성의 말을 써서 표현하고자 하는 문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道가 아닌 眞을, 古가 아닌 今을, 彼가 아닌 我를 문학이 담아야 할 가치로 내세우는 주장이 보편적 설득력을 얻었다.³³⁾ 이런 문학에 공감하는 지식층의 확대는 성리학적 문학관의 이완으로 이어지고 이런 징후들이 상층부의 사대부 문인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

박지원을 비롯한 당시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古今의 치세와 난세의 원인, 제도개혁, 농공업의 진흥, 貨殖 등 사회경제적인 개혁방안을 토론했고 중국여행 체험을 글로 써서 돌려보기도 했다. 홍대용·이덕무·박제가·유득공·이서구 등이 박지원과 더불어 당시 현실문제를 논의하고 학문적·문학적 교류를 함께 했다. 그들이 특히 흥미를 가졌던 것은 청나라 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는 것이었다. 그 중 <열하일기>는 다채로운 표현양식과 독특한 문체를 구사해 당시의 화제작이었다. 박지원의 문체는 독특해서 燕巖體라고 불렸는데 연암체의 특징은 소설식 문체와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 고문에 구애되지 않고, 소위 폐사소품체라고 불리던 소설식의 표현방법을 과감히 도입해 쓰고 현실의 생동하는 모습을 묘사했으며 高踏的인 用事는 쓰지 않았다.

정조는 문체의 흥망성쇠는 정치현실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世道를 반영한 글을 읽으면 당시 정치의 得失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문학은 道를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당시의 문체가 萎靡하여 근심스럽다고 하면서

33) 정민, 앞의 책, p.134.

문체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정조는 六經을 진짜 古文이라고 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典雅한 고문으로 글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정조는 연암 일파의 문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문풍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펼쳤다. 이른바 文體反正³⁴⁾을 시행한 것이다.

규장각을 설치해 당시의 문운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고 朱子書를 비롯해 학문과 문학에 본보기가 될 만한 책들을 간행하는 한편 명·청의 문집과 잡서 그리고 패관소설의 국내 유입을 금했다. 또 문체가 불순한 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옥·남공철·이상황·김조순 등을 문체 불순으로 문책했으며 自訟文을 지어 바치도록 했다. 정조의 문화정책, 즉 文體反正은 당시의 전통적인 純正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治世의 문학을 꽃피우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변화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조선 후기 세계관의 다양화와 상대주의적 인식은 上下·本末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명분론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사상적 통제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패사소품체는 더욱 확산되어 소설적 문체와 사실주의적 표현기법의 작품이 계속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옥은 대표적인 패사소품체의 문인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정조로부터 士族으로서의 치욕적인 견책을 받기에 이른다. 정조 16년(1792) 성균관 上濟生으로 있던 이옥은 應製文으로 작성한 글의 문체가 패사소품체를 답습하고 있다고 하여 매일 50수의 사륙문을 지으며 문체를 반성하도록 하라는 왕의 譴責을 받은 적 있고³⁵⁾ 정조 19년(1795) 迎鑿製에서 그는 다시 문체가 焦殺하다는 지적을 받아 과거응시를 금지하는 停擧의 명을 받았다가 지방의 군적에 편적되는 充軍의 명을 받기도 하였다. 끝이어서 있었던 과거에서도 여전히 문체를 고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영남의 삼가로 이적되었다. 이

34) 문체를 正統古文으로 되돌리려 한 이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였다. 당시의 서학관련자들 중에는 왕 주위에 있는 남인시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학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 경우 이들이 몰락되면서 노론의 강력한 세력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계산이 있었다. 따라서 서학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한 반면 문체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였는데 소품체를 사용하여 적발된 이들은 한결같이 노론계 인물들이었으며 이것은 서학과 관련있는 자가 남인계통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일종의 정치세력 견제의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35) 『국역조선왕조실록』, 정조 16년 10월 19일 갑신조: 동년 10월 24일 기축조 참조.

듬해 그는 다시 별시 초시에서 榜首를 차지하였으나 계속 문체가 문제가 되어 榜末에 붙여졌고 정조 23년(1799) 삼가현으로 다시 소환되어 4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옥 자신의 기록³⁶⁾에 의하면 국왕 정조가 문체를 문제 삼아 정거의 명을 내렸던 것은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여겨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충군으로 명을 바꾼 것이다. 이옥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 셈이었지만 이옥은 자신의 독특한 문체를 끝내 고집하였다.

정조 23년(1800) 삼가에서 본가가 있는 남양으로 돌아온 이옥은 출사에 대한 미련을 접고 더 이상 과장에 나가지 않았다. 남양에서의 생활은 집안의 농사일을 살피며 한적하게 지냈던 것 같다. 성균관 유생시절이나 삼가 시절에 나온 글들이 대개 저자를 배경으로 한 흥미성과 기이성에 주목했다면 말년기의 남양에서 지은 편들은 늘 접하는 평범한 사물과 생활주변의 일상사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기술하고자 했다. 이전에 비해 편폭이 장편화되어 있으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해 내어 관찰력과 언어감각이 더욱 날카롭고 섬려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³⁷⁾

이처럼 이옥은 자신의 소신대로 작품을 썼다. 문체반정에 반성문을 제출한 사람들은 예정된 출셋길을 달려 영의정이 되고 國舅가 되었다. 하지만 반성문을 쓰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그는 끝내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것은 그의 생득적 기질이 외골수인 까닭도 있겠지만 자신의 문학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높은 긍지를 갖고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옥의 문학창작에서 보여준 새로운 문학관과 독특한 문체 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선 후기 문학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옥 문학이 갖는 위상을 살피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 이옥의 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옥(1760~1815)은 字가 基相이고 號는 文無子, 梅史, 梅庵, 絢錦子, 花石子, 靑華外史, 花澈外史, 梅花外史, 桃花流水館主人 등을 사용하였으며 본관은 전주이다. 이옥

36) 전집2, p.164.<追記南征始末>: 乙卯 八月 臣以上濟生 應迎鑾製 上以體怪 命停學 改命充軍 大司成招諭聖教 慶科不遠 若停學 則將不得卦 故改以充軍 其卽往而歸 應製諸科 如前並卦 又所編邑 許賜科由 臣惶恐感泣

37) 이현우, 「이옥, 소외문인의 자아와 그 문학」, 『반교어문연구』 20집, 반교어문학회, 2006, p.85.

의 조부 東胤(1671~1751)은 司馬榜目(생원진사시의 합격자 명부)에는 禦侮將軍 行龍 驤衛副司果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고 부친 常五(1722~1796)는 자가 士恒이며 영조 30년(1754)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또 두 형 鏌과 鏌 밑으로 아우 鏌이 있었으며 <綱 錦小賦>와 <重興遊記>등의 유고를 수습하여 김려를 찾아간 아들 友泰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옥을 효령대군의 11대손으로 밝힌 바 있다.³⁸⁾ 조선왕실 전주이씨 대 동보인 『濔源續報』에 근거하여 이옥의 가계와 교우관계 등을 고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옥은 1760년(영조 36)에 이상오(1722~1796)와 남양 홍씨(1738~1812, 洪以錫의 녀)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해주 鄭景祚의 녀(1759~1815)와 혼인하여 아들 友泰와 4녀를 두었다. 그의 직계조상 가운데 알려진 이는 李起築(1589~1645)으로, 그는 서얼 출신으로서 사촌형 李曙와 함께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녹훈을 받고 承嫡을 한 인물이다. 승적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이후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모두 庶族과 연혼이 이루어 졌으며 대대로 무과로 진출하다가 이옥 부자 대에 이르러 생·진 합격자를 배출하게 된 한미한 출신이며 당색은 小北이라는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옥에게 이러한 집안내력은 깊은 소외감과 열등감을 갖게 했을 것이고 그의 문학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문체반정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어 평생 출사의 길이 막혀버린 것은 그의 소외의식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옥의 독특한 문체형성에는 당시 유행하던 明·淸문학의 영향도 컸다. 이옥은 公安派와 竟陵派, 錢謙益·馮夢龍 등 명말청초의 작가와 당시 조선에 크게 소개되지는 않았던 청대의 이어(李漁, 1611~?)와 나병(羅聘, 1733~1799) 등의 작가까지 섭렵했다. 소설로 말하면 <수호전>이나 <서상기>, <금병매>, <목단정>처럼 알려진 작품은 물론 풍몽룡의 <情史>와 이어의 작품으로 알려진 <육포단>, 여옹의 <女仙外史> 등 신간 애정소설까지 읽었음이 확인된다.³⁹⁾

‘文章은 반드시 선진양한을 본받고 詩는 반드시 성당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은 당시

38) 김영진, 「이옥연구」, 『한문교육연구』 1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39)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푸른역사, 2007, p.293.

문인들에게 불변의 진리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옥은 경박한 소설식 문체를 구사하여 국가와 정치, 우주와 性命 같은 거대담론을 지향하던 기존의 문체와는 판이한 글쓰기를 지향하였다. 小品體라 일컫는 그것은 사회적 소외현상과 그러한 소재의 인물을 선호하고 개인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독특하고도 개성적인 면모를 드러내는데 치중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옥을 이해한 유일한 벗인 김려는 그의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에서 간혹 李基相의 글을 비방하여 ‘고문이 아니고 소품일 뿐이다’라고 한다.

나는 가만히 웃으며 말한다.

“이 어찌 족히 문장을 말할 만한 자이겠는가? 남의 글을 논하는 자는 그 고금을 논할 수 있고 그 대소를 논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만약 ‘소품일뿐 고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다만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는 자의 말에 불과하다. <월절서>나 <비신>이 어찌 일찍이 소품이 아니며 또 어찌 고문이 아니겠는가? 또 글을 보는 것은 꽃을 보는 것과 같다. 모란과 작약의 풍성함과 요염함을 가지고 페랭이꽃과 수국을 버리고, 가을 국화와 겨울 매화의 고담함을 가지고 붉은 복사꽃과 살구꽃을 미워한다면, 이를 일러 꽃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⁴⁰⁾

이옥이 <花說>에서 모든 꽃을 다 불러내어 그 꽃들의 개성과 가치, 다양성·개별성을 말하였듯이 김려 역시 문학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이옥은 탈중세적 변화기의 문풍 속에서 개성적 문체로 인한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하겠으나 끝까지 고집한 그 문장으로 근대문학의 가교 역할을 한 셈이다.

40) 전집2, p.495. <題挑花流水館小稿卷後> : 世或訾李其相之文, 曰: “非古文也, 是小品也.” 余竊笑之曰: “是奚足以語文章哉? 論人之文者, 論其古今, 可也; 論其大小, 可也. 若云小品而非古文, 則此耳食者之言耳. <越絕>·<秘辛>, 何嘗非小品, 而又何嘗非古文也? 且看文如看花, 以首丹芍藥之富艷, 而棄石竹繡毬, 以秋菊冬梅之枯淡, 而惡緋挑紅杏, 是可謂知花者乎?”

2. 이옥의 문학세계

1) 해체적 시선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는 계층적 상하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였다. 이러한 유교적 지배이데올로기는 인간과 사물, 華와 夷, 古와 今, 雅와 俗을 보는 시각도 우열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는 세계관의 다양화와 상대주의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해체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전의 주자학적 논리에 근거한 중심적이고 통일적인 문학론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이옥은 초기에는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든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을 꿈꾸던 현실에 밀착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한미한 가문에다 외골수적인 기질이 더해진 개성적인 글쓰기로 문체반정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걸리고 말았다. 즉 이옥은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말았으며 그러한 경험은 일정부분 방외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는 김시습이나 허균과 유사한 인생패턴을 경험한 인물이라 하겠다.⁴¹⁾ 그들은 자신의 눈에 비친 현실적 모순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였는데 이러한 저항과 비판은 여러 형태를 통해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祭文神文>에는 이옥의 현실적 갈등의 흔적과 비판의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장의 문자와 같은 것은 비록 대방가가 달갑게 여기는 바 아니지만, 수재·학구는 반드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또 이는 선비가 자신을 출세시키는 계제이니 반평생 마음을 쓰는 토제어전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뜻을 둔 지 십육 년에 거의 천 편에 가까운 시가 있고 거기에 이백편의 변려문이 섞여 있으며 책문은 오십 편을 엮었고 부·논·명·경의가 틈을 타서 번갈아 나왔다. 망령되어 스스로 ‘한 번 쯤 과거에 합격함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무라는 이들은 오히려 “시는 화려해

41) 김균태, 「이옥의 문학사상연구」,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77, p.53.

야 하는데 그대는 소박하고 변려문은 섬세해야 하는데 그대는 창고하고 책문은 적절해야 하는데 그대는 지나치게 풍부하고 부 이하는 시원찮은 나무와 같아 비평할 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까닭에 잠시 반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의 장원이 될 뻔하였으나 결국 여러 차례 미치지 못하였고 일곱 차례나 과장에 들어갔지만 필경 한 차례의 해도 얻지 못하였고 한 번 금전에 대책을 하였으나 또한 내침을 당하였다. 장차 나이가 스물여섯이 되려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한 사람의 조대일 뿐이다. 누가 이 사람을 고체에 능하다고 말하겠는가? 비록 능하다고 말하더라도 나 또한 스스로 믿지 못한다. 묵묵히 시종을 생각해 보건대 내가 文神 그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 같은 봄이로되 연꽃과 국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느리디 느려 꽃피기 어려우니 복사꽃 오얏꽃이 일찍 피어남에 비교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어찌 봄의 잘못이겠는가? 연꽃과 국화가 봄을 저버린 것이다. 고요히 생각해 봄에 얼굴이 붉어지고 위로 열이 올라 내가 차마 그 말을 많이 하지 못하겠다. 다행스럽게도 그대 문신이 나를 낮고 비루하게 여기지 말고 나의 어리석은 성품을 더욱 도와주어 이전의 나를 한 번 씻어준다면 내가 비록 불민하나 또한 마땅히 새해부터는 조심조심하여 오직 그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도모하겠다. 금일은 세모라, 내가 느낌이 많아 붓을 엮어 안주로 삼고 연지로 술향아리를 삼아 심향 한 줄기 가늘고 파르스름하게 실오라기처럼 피어오르는 데 제문을 들고 문신에 고한다. 문신은 이를 흠향하시라.⁴²⁾

26세를 맞이하는 세모에 지은 <祭文神文>에는 더욱 자신의 심리적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이 시기는 문체반정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었지만⁴³⁾ 그는 마치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듯 다분히 戲謔的·반어적 태도로써 제문을 쓰고 있다. 그는 세모에 자신을 돌

42) 전집2, p.265~266. <祭文神文>:……若其科場文字, 雖是大方家所不屑, 而秀才學究, 必以是歸重. 又是青衿進身之梯, 則半生費心魂蹄魚筌. 故志於科十六年, 有近千詩, 錯之以二百儷文, 瀾之以策五十, 賦·論·銘·經義乘隙迭發, 妄自以爲忝一科亦無愧, 而咎之者猶曰: “詩宜華而木, 儷宜細而蒼, 策宜適而富, 自賦以下, 檜無譏焉.” 是故, 乍游頓庠, 危居魁, 屢不及, 七入荆闈, 竟孤一解, 一對金殿, 又被見黜, 年將二十有六, 而尚依舊一措大也, 誰謂斯人能乎科禮? 雖曰能之, 余亦不自信, 默念終始, 余之不負汝者, 有何乎?

噫! 同是春也, 遇蓮與菊者, 必遲遲難發, 莫比乎桃李之早, 則豈春之咎耶? 蓮與菊, 負之矣. 靜言思之, 面駢肚熱, 余不忍多其言. 幸汝文信, 不以余卑鄙, 益相余癡性, 俾前者一洒, 則余雖不敏, 亦當自新年, 惕惕惟不負是圖. 今日歲暮, 余庸多感, 有掇筆花, 尊酌硯池, ‘心香一字, 細碧如絲, 操文告神. 神其歆茲.

43) 이옥의 응제시나 표문의 문체가 폐관소설체라 하여 정조가 문책을 한 일은 <조선왕조실록> 정조 16년(1792)으로 나타나 있다.

아보면서 새해에는 조심조심하여 문신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지만 사실 이옥에게 있어서는 이미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문장의 신은 죽고 없었다. 그러기에 제문을 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꽃과 국화가 복사꽃·오얏꽃보다 늦게 피는 것은 제 스스로가 늦게 피는 것이지 봄을 탓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를 따랐더라면 문신의 도움을 받았을텐데 그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버릴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이옥은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유교적 지배이념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옥은 특히 성리학적 사고, 중세 예교와 같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 회의하였다. 조선조 문인들 사이에 朱子, 즉 朱文의 권위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옥은 주자의 문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오나라의 미인과 한나라의 궁녀는 없을지언정 힘센 계집종은 없을 수 없고 주 목왕의 팔준마와 한 무제의 박리는 없을지언정 늙은 암소는 없을 수 없고 서맥과 선해는 없을지언정 쌀과 소금은 없을 수 없고 제사와 해금은 없을지언정 포백은 없을 수 없고 큰 궁궐과 높은 대는 없을지언정 괴·기·구·간의 옥은 없을지언정 자갈들은 없을 수 없고 훌륭한 나무와 기이한 향기는 없을지언정 쇠과 솟은 없을 수 없고 예리한 창과 보배로운 검은 없을지언정 도끼와 삽은 없을 수 없고 청란과 백록은 없을지언정 닭과 돼지는 없을 수 없고 고문과 선문은 없을지언정 주자의 글은 없을 수 없다.

주자의 글은 理學家가 읽으면 담론을 잘 할 수 있고 벼슬아치가 읽으면 疏筭에 능숙할 수 있고 과거시험 보는 자가 읽으면 대책에 뛰어날 수 있고 시골 마을 사람이 읽으면 편지를 잘 쓸 수 있고 胥吏가 읽으면 장부정리에 능숙할 수 있다.⁴⁴⁾

44) 전집1, p.290.<讀朱文>: ……常人日用之間, 寧無吳姬漢嬪, 不可無健婢, 寧無穆驂武騾, 不可無老牴; 寧無瑞麥仙蕓, 不可無米塩; 寧無齊紗海錦, 不可無布帛; 寧無大宮高臺, 不可無屋室, 寧無瑰·琪·珣·玕, 不可無礫石; 寧無美木奇香, 不可無薪炭; 寧無利矛寶劍, 不可無斧鍤; 寧無青鸞白鹿, 不可無鷄豕; 寧無古文選文, 不可無朱文. 朱文, 理學家讀之, 可以善談論; 仕宦者讀之, 可以閑疏筭; 學者讀之, 可以優對策; 村里人讀之, 可以能札翰; 胥史讀之, 可以熟簿牒.

주자의 글을 힘센 계집종과 늙은 암소 등 보통사람의 생활에 비근한 것과 동떨어서 다루고 있는 것과 주자의 글을 읽으면 답론, 편지, 장부정리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은근히 주자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주자의 문장도 현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때, 이념과 격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이옥의 자유로운 의식은 老子를 읽고 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은 막힘이 없고 물은 주가 됨이 없고 부러워함이 없고 업신여김이 없지만, 천지의 장부요 만물의 젖이다’⁴⁵⁾라고 老子의 세계를 우리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그 모습을 바꾸는 물이라 하여 예찬하였다. 이처럼 이옥은 경직된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려는 열망을 표현하였으며 유교적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花說>은 사물은 저마다 고유한 특색이 존재하므로 그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개방적 인식이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이옥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유가 이념이 투영된 梅蘭菊竹과 같은 꽃만이 꽃이 아니다.

나는 알겠노라. 푸른 것은 그것이 버드나무인줄 알겠고 노란 것은 그것이 산수유, 구자화인 줄 알겠고 흰 것은 그것이 매화꽃·배꽃·오얏꽃·능금꽃·벚꽃·귀룽화·복사꽃 중 벽도화인줄 알겠다. 붉은 것은 그것이 진달래꽃·철쭉꽃·홍백합꽃·홍도화인 줄 알겠고 회고도 붉거나 붉고도 흰 것은 그것이 살구꽃·앵두꽃·복사꽃·사과꽃인 줄 알겠으며 자주빛은 그것이 오직 정향화인줄 알겠다.⁴⁶⁾

꽃들은 단지 색으로만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다. 각각의 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눈과 비 등 날씨에 따라 보는 주체에게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서울 장안의 꽃은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으며, 이 밖의 벗어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볼만한 것은 못 된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때에 따라 같지 않고 장소에 따라 같

45) 전집1, p.285.<讀老子>: “……水無莫無主無盡無侮, 天地之所腑, 萬物之所乳.”

46) 위의 책, p.427. <花說>: 吾知之矣. 青者, 吾知其柳; 黃者, 吾知其茱萸花·拘刺花; 白者, 吾知其庭梅花·李花·來禽花·奈花·鬼籠花·桃之碧桃花; 紅者, 吾知其杜鵑花·羊躑躅花·山丹花·紅桃花·白而紅·紅而白者, 吾知其杏花·櫻桃花·桃花·蘋婆花; 紫者, 吾知其惟丁香花也

지 않다. 아침 꽃은 어리석어 보이고, 한낮의 꽃은 고뇌하는 듯하고, 저녁 꽃은 화창하게 보인다. 비에 젖은 꽃은 파리해 보이고, 바람을 맞이한 꽃은 고개를 숙인 듯하고, 안개에 젖은 꽃은 꿈꾸는 듯하고, 이내 낀 꽃은 원망하는 듯하고, 이슬을 머금은 꽃은 빠기는 듯하다. 달빛을 받은 꽃은 요염하고, 돌 위의 꽃은 고고하고, 물가의 꽃은 한가롭고, 길가의 꽃은 어여쁘고, 담 밖으로 뻗어 나온 꽃은 손쉽게 접근할 수 없고, 수풀 속의 꽃은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이런 가지각색 그것이 꽃의 큰 구경거리이다.⁴⁷⁾

이처럼 개별적인 것들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의 사용 방식이 이옥 산문의 특징이다. 이옥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 일상에서 쉽사리 망각되는 세계의 다양성을 복구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사물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사고는 사람과 동물사이에 도 해당된다. 그는 평소 타고 다니던 말이 죽자 그 죽음을 애통해하며 <所騎馬傳>을 지어 ‘사람과 짐승이 다름이 있지 않다’⁴⁸⁾고 하였으며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두고 有情無情論을 펴기도 하였다.⁴⁹⁾

이옥은 끊임없이 자신의 글쓰기가 현실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회의하였다. 성리학적 사고나 증세 예교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회의는 세계를 상대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다양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사고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봉건지배 질서와 체제의 중심을 향한 절대적 사유체계에서 벗어나는 탈중심적인 의식으로 드러났으며 상층의 인물보다는 하층의 인물, 거대담론보다는 일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해체된 시선을 견지하였다. 이옥의 이와 같은 시선은 설을 앞둔 대목장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 <市記>라는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문체반정의 시책에 따르지 않아 1799년 충군의 명을 받고 삼가현에 머무는 동안에 쓴 것이다.

47) 앞의 책, 長安之花, 無出於此, 出於此, 亦無可觀者, 於其中, 有時不同, 有地不同. . 朝花癡, 午花惱, 夕花暢, 雨花疲, 風花俛, 霧花夢, 烟花怨, 露花矜. 月中之花妖, 石上之花高, 水邊之花閑, 路傍之花俏, 出牆之花冶, 藏林之花澁. 件件般般種種色色, 此花之大觀也.

48) 전집2, p.383. <所騎馬傳> : “自汝強炳南, 心焉念不捨, 忽聞汝其斃, 初猶訝其假. 世無郭景純, 已矣從此舍. 不有人畜異, 余淚可盈罍”

49) 전집1, pp.47~52.<後蛙鳴賦>

……12월 27일 장날에 나는 무료하기 짝이 없어 종이창 구멍을 통해서 밖을 엿보았다. 때는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고 구름 그늘이 짙어 분변할 수 없었으나 대략 정오를 넘기고 있었다.

소와 송아지를 몰고 오는 사람, 소 두 마리를 몰고 오는 사람, 멧돼지 네 다리를 묶어 짊어지고 오는 사람, 청어를 묶고 들고 오는 사람, 청어를 엮어 주렁주렁 드리운 채 오는 사람, 북어를 안고 오는 사람, 대구를 가지고 오는 사람, 북어를 안고 대구나 문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일담배를 끼고 오는 사람, 미역을 끌고 오는 사람, 설과 뿔 나무를 매고 오는 사람, 누룩을 지거나 이고 오는 사람, 쌀자루를 짊어지고 오는 사람, 꽃감을 안고 오는 사람, 종이 한 권을 끼고 오는 사람, 접은 종이 한 폭을 들고 오는 사람, 대광주리에 무를 담아 오는 사람, 짚신을 들고 오는 사람, 미투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 굵은 노끈을 끌고 오는 사람, 목면포로 만든 휘장을 묶어서 오는 사람, 자기를 안고 오는 사람, (중략) 손을 잡아끌어 장난치는 남녀,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 왔다가 다시 가고 갔다가 또다시 바빠 돌아오는 사람, 넓은 소매에 자락이 긴 옷을 입은 사람, 소매가 좁고 짧으며 자락이 없는 옷을 입은 사람, 방갓에 상복을 입은 사람, 승포와 승립을 한 중, 패랭이를 쓴 사람 등이 보인다.

(중략) 아직 다 구경을 하지 못 했는데 나무 한 짐을 짊어진 사람이 종이창 밖에서 담장을 정면으로 향한 채 쉬고 있었다. 나 또한 궤안에 의지해 누웠다.

세모인 터라 저자가 더욱 붐비고 있었다.⁵⁰⁾

이옥은 방 안에서 조그만 종이창에 난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본다. 한 곳에 시선이 머물면 집요하리만치 꼼꼼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한다. 시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그저 한 무리로 지칭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50) 전집 2, pp.108~110. <市記> : 十二月之二十七日日市, 余無聊甚, 從搗穴窺之 時雪意猶濃, 雲陰不可辨, 而大略已過午矣.. 有驅牛若犢而來者, 有驅兩牛來者, 有抱鷄來者, 有拖八梢魚來者, 有縛猪四足擔而來者, 有束青魚來者, 有編青魚罈而來者, 有抱北魚來者, 有特大口魚來者, 有抱北魚來特大口魚或八梢魚而來者. 有挾於草來者, 有曳海藿來者, 有擔薪若櫛而來者, 有負或戴麵而來者, 有荷米囊而來者, 有擁乾柿來者, 有挾一卷紙來者, 有手摺紙一幅來者, 有以竹筐盛蘿來者, 有提草不借來者, 有特繩屨來者, 有拖大組來者, 有縮結木棉布揮而來者, 有抱磁器來者, (중략) 有男女挽手相戲者, 有去而復來者, 有來而復去, 去而又復來忙忙者,. 有衣廣袖長裾者, 有衣上袍下裳者, 有衣窄袖長裾者, 有衣袖窄而短無裾者, 有羅濟笠而持凶服者, 有僧僧袍僧笠者, 有戴平涼笠者.(중략) 觀未止, 有負一擔柴者, 憩于搗外正牆面, 余亦隱几而臥, 歲暮故市益繁也..

이러한 관찰은 관찰대상의 가치여부와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중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주변적 가치를 찾는데 유리한 시점을 갖고 있다. 전범적 문장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세와 주변적 대상의 진실을 포착하는 자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르겠다. 호남인이 영남사람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이 옳은가, 영남인이 호남인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이 옳은가. 또 어찌 알겠는가, 호서인과 영남인이 우리의 말을 두고 웃지 않을는지.⁵¹⁾

남쪽 귀양길에서 호남사람이 영남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아 놀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이 글은 지방언어의 재발견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언어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서로 비웃는 것은 자신의 언어가 절대적이라는 관념 위에서 타인의 언어에 대해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말은 언어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나름의 존재가치를 그것대로 인정하겠다는 탈중심적 자세로 사소한 대상의 ‘참’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해체적 글쓰기가 그가 걸어간 길이였다.

2) 眞의 문학관

서양과 동양 어느 곳이 먼저랄 것도 없이 18세기는 변화의 풍조가 팽배했다. 기존의 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렬했다. 조선왕조의 정치철학이었던 성리학적 규범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었다.

문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시기 지식인들의 의식을 강렬하게 지배한 변화의 축은 먼저 ‘道’를 추구하던 가치지향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51) 전집1 p.359. <方言> : 吾不知, 湖之人之笑嶺之人之言, 是耶, 嶺之人之笑湖之人之言, 是耶? 又安知湖之人嶺之人, 不笑吾之人之言耶?

다는 것이다. 그들은 변치 않을 도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거두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눈앞의 진실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 또한 ‘옛날’로 향하던 가치지향이 ‘지금’으로 선회했으며 ‘저기’에 대한 관심이 ‘여기’를 향한 관심으로 바뀌었다.⁵²⁾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情의 자유로운 발현을 중시하는 문학적 흐름으로 나타났다. 조선 全時期를 관통하는 지배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를 억제하고 道 또는 天理로 상징되는 도덕률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문학작품에서도 당연한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실학파의 현실비판적 문학과 함께 당시 중세적 지배이데올로기의 경직된 풍토를 벗어나 탈중세적 징후를 보여주는 문학적 지향은 이 시기 문학관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되는 바이다.

이옥은 이와 같은 일련의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인물이다. 그가 남긴 글들은 조선 후기 소품체 문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 ‘眞機 追求와 抒情志向’⁵³⁾을 가장 진솔하게 드러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옥의 문학은 한 마디로 ‘眞情’ 또는 ‘眞’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정감과 욕구표출에 대한 창작원리를 제시한 이옥의 문학론은 모방과 인습에 의해 똑같은 문학만을 양산해내는 기존 문단 풍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⁵⁴⁾라는 측면이 있다. 즉 이옥은 관념화·질곡화의 길을 걷고 있는 당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응하여 ‘眞’의 문학론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시대의 조건에 부합하는 그 시대의 문학이 있음을 역설했다고 하겠다.

한편 문학에 있어 ‘眞’과 ‘眞情’을 강조한 것은 擬古主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로서 연암계열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明末 小品家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⁵⁵⁾ 이옥은 이러한 眞情論에 힘입어 자신의 문학관을 제기하였다. 그의 주장은 <俚諺>의 序인 <三難>과 <桃花流水館問答>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삼난>에 나타난 글들을 통해 인간의 삶을 형상화한 방법으로써 그의 문학론

52) 정민, 앞의 책, pp.111~112.

53) 김성진, 「조선후기 소품체 산문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54) 이현우, 「이옥소품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55) 이현우, 앞의 논문.

을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심생전>에 나타난 미적 특질을 규명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이옥은 이 세상의 근원을 情으로 설정하고 정을 통해 세상을 한눈에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저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에게 대한 관찰은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 정에 대한 관찰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 이 세상이 있음에 곧 이 몸이 있고 이 몸이 있음에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음에 곧 이 情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관찰하여 그 마음의 邪正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賢否를 알 수 있고 그 일의 득실을 알 수 있고 그 풍속의 사감을 알 수 있고 그 땅의 후박을 알 수 있고 그 집안의 흥쇠를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治亂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의 汚隆을 알 수 있다”⁵⁶⁾

이옥은 情을 세상 그 자체, 현상 그 자체의 영역인 동시에 나와 세계의 동일한 원의 중심적 핵세포로 보았다. 그런데 왜 하필 남녀의 情人가? 이옥은 사람의 정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모두 그 정 의 진실됨을 살펴볼 수가 없다. 그런데 유독 남녀의 정에 있어서만은 곧 인생의 본연적인 일이고 또한 천도의 자연적인 이치인 것이다.”라고 하여 남녀의 정이야말로 진실의 대명사처럼 주목하였다. 남녀의 진정을 강조하는 주장에는 당연히 예교의 허위성을 공격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유교 교양을 갖춘 선비가 유교 예절의 허위성을 공격하는 이론적 근거를 놀랍게도 유교경전에서 끌어 오고 있다. 공자와 주자를 끌어들여 情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전복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감 중에서 남녀의 정을 최고 우선순위로 지목하는 것은 그것이 모든 만남의 시작이며 천지간의 일체만물의 탄

56) 전집2, p.411. <二難>: 夫 天地萬物之觀, 莫大於觀於人 : 人之觀, 莫妙乎觀於情 : 情之觀, 莫眞乎觀乎 男女之情. 有是世, 有是身, 有是事; 有是事, 便有是情, 是故, 觀乎此, 而其心之邪正可知, 其人之賢否可知, 其事之得失可知, 其俗之奢儉可知, 其土之厚薄可知, 其家之興衰可知, 其國之治亂可知, 其世之汚隆可知矣.

생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해서라고 한다. 『詩經』에서 끌어온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대는 말하기를 천지만물이 그대에게 들어갔다 그대에게서 나와 그대의 이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찌 그대의 천지만물은 유독 한 두 가지에 그치고 말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이언은 다만 분바르고 연지 찍고 치마 입고 비녀 꽂은 여자와의 일만을 언급했는가? 옛사람들이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벌떡 일어나 자세를 바꾸고 꿇어 앉아 사례하며 말했다.

“선생의 가르침이 깊은 맛이 있다. 제가 잘못했으니 곧장 이것을 태워 버리시라. 그러나 제가 적이 선생께 청하니 선생께서는 끝까지 가르쳐 주시기 바란다. 감히 묻겠다. 『詩傳』이란 어떤 책인가?”

“경전이다.”

“누가 지었는가?”

“당시의 시인이 지었다.”

“누가 이를 취했는가?”

“공자다”

“누가 주를 달았는가?”

“집주는 주자가 하였고 전주는 한나라의 유자들이 하였다.”

“그 큰 뜻은 무엇인가?”

“思無邪, 즉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

“그 효용은 무엇인가?”

“백성을 교화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주남이니 소남이니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풍이다.”

“말한 바는 무엇인가?”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대다수가 여자의 일이다.”

“모두 몇 편이나 되는가?”

“주남이 11편이고 소남이 14편이다.”

“그 중에서 여자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각각 몇 편인가?”

“토저, 감당 등 모두 합하여 5편 뿐이다.”

“그러한가? 이상하다! 천지만물이 다만 분 바르고 연지 찌고 치마 입고 비녀 꽂은 여자들의 일에 있음은 그 옛적부터 그러했던 것인가? 어찌하여 옛 시인이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을 꺼릴 줄 몰라서 그러했겠는가? 객이여! 그대가 그 설명을 듣겠는가? 여기에 그 까닭이 있다. 대저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에게 대한 관찰은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 정에 대한 관찰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⁵⁷⁾

이옥은 <이언>이 여자들의 일만 노래한 것이라는 도학자들의 비난에 대해 『詩經』을 거론하고 있다. 도학자들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공자가 刪冊하고 주자가 집주한 『詩經』 역시 자신이 엮은 <이언>처럼 여자의 일을 노래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경이 예에 어긋나지 않듯이 자신의 <이언>도 예에 어긋나지 않으며 ‘牧民聖善’이라는 효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옥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以夷制夷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情을 중시하고 眞을 추구하는 그의 글쓰기는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강한 인상으로 남게 된다. 문학은 사상이나 윤리의식을 내포하기는 하되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 형상성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현상세계를 왜곡함 없이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며 정에 호소할수록 대중적 호소력도 커져서 문학적 인상도 강하게 남는다. 그런 까닭에 情에 대한 주목, 특히 남녀의 정에 대한 주목과 그 형상화는

57) 전집2, pp.409~411. 「二難」: 惑者 “子言天地萬物, 人乎子出乎子, 爲乎子之俚諺, 則豈子之天地萬物, 獨一個兩個而止耶? 何子之俚諺, 只及於胭脂裙釵之事耶? 古人非禮勿聽, 非禮勿視, 非禮勿言, 亦若是乎?” 余蹶然而起, 改容跪而謝曰: “先生教之, 旨矣. 第子失矣, 請亟焚之, 然弟子苟有請於先生者, 幸先生卒教之, 敢問<詩傳>者, 何也?” 曰: “經也.” “誰作之?” 曰: “時之詩人也”. “誰取之?” 曰: “公子也.” “誰註之?” 曰: “集註朱子也, 箋註漢儒也.” “其大旨, 何?” 曰: “思無邪也.” 曰: “教民成善也.” “曰<周>·<召南>, 何.” 曰: “其功用, 何?” 久之曰: “多女子之事也.” “凡幾篇?” 曰: “維<兔置>·<甘棠>等合五篇已也.” 曰: “然歟? 異哉! 天地萬物之只在於胭脂裙釵者, 其自古在昔而然歟? 何古之詩人之不憚乎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而然歟? 客乎! 子欲聞其說乎? 是有說焉 夫 天地萬物之觀, 莫大於觀於人: 人之觀, 莫妙乎觀於情: 情之觀, 莫眞乎觀乎 男女之情.

이옥의 문학세계를 더욱 실감나게 하고 생기에 넘치게 만들었다.

이옥은 남녀 중에서도 특히 여자에 관심을 가졌다. 여자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시경에 부합되며 그 태도와 복식, 거처 또한 끝 가는 데까지 가게 되어 그 복잡다단한 깊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 중에 詩的 소재로는 여자가 낫다고 하였다.⁵⁸⁾ 결국 인간의 반응과 심리를 통해 세상을 살핌에 있어 감정의 노출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朱子主義者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던 것과는 달리 情의 발현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본다고 하였다. 이러한 眞의 문학관은 기존의 절대적인 성리학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상대론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옥이 남녀의 진정을 강조하고 정면으로 애정문제를 다룬 것은 <沈生傳>과 <愛琴供狀>, <必英狀辭> 그리고 <俚諺>이 있다. <애금공장>의 애금은 시집을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지만 가문의 체면에 손상을 입혔다고 친정에서조차 박대를 당하는 여인이고 <필영장사>의 필영은 자유로운 연애를 하다가 집에서 박대를 당하는 여인으로 모두 제도와 인습에 의하여 희생된 여인들을 묘사한 것이다. <이언>은 각 계층에 속한 여성의 생활상과 심리묘사에 비중을 둔 작품이다. 이밖에 <北關妓夜哭論>이나 <俠媚紀聞>이 있는데 기녀의 애정문제를 소재로 삼아 세간의 市交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옥은 천도지리로서의 남녀지정을 말하고 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는 남녀의 애정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세상과의 만남을 우의하고자 하였다. <심생전>에서도 이옥은 탈중심적 관점에서 서 있는 자신의 위치와 거기에서 바라본 세대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58) 위의 책, p.414. "여자란 편벽된 성질을 가졌다. 그 환희, 그 우수, 그 원망이 진실로 모두 정 그대로 흘러 나와 마치 허끝에 바늘을 간직하고 눈썹 사이로 도끼를 회롱하는 것과 같음이 있으니 사람 중에 시경에 부합되는 것은 여자보다 더 묘한 것이 없다. 부인은 尤物이다. 그 태도, 그 언어, 그 복식, 그 거처가 모두 끝 가는 데 까지 가게 되어 마치 조는 가운데 피꼬리 소리를 듣고 취한 뒤에 복사꽃을 감상하는 것과 같음이 있다. 사람 중에 시료에 갖추어진 것은 부인처럼 풍부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

Ⅲ. <심생전>의 구조 분석

<심생전>은 傳 樣式의 일반적 체제인 도입부·행적부·논찬부의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나 입전대상이나 입전의식에 있어 이전의 작품과 상당히 다른 면모가 나타난다. 이는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테지만 이옥만의 특징적인 면도 발견할 수가 있다. <심생전>의 구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 양식의 일반적 체제를 살펴본 후 <심생전>이 갖는 구조적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傳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평생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본래 史家들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역사 서술로서의 傳에서 개인의 생애를 기록하는 형식을 지니게 된 것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부터였다. 사마천이 『사기』를 편술할 때 백이열전 이하 70여 편의 전을 남긴 이후 역대의 사가들이 이를 계승하였고 正史의 필체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차츰 정사뿐만 아니라 문인들에게도 보급되어 정사에 수용하지 못한 處士·逸民의 드러나지 않은 덕행이나 서인 천민의 본받을 만한 행실을 골계를 섞어가며 기교적으로 서술하여 후대에 드리우려 하였으니 그 수용되는 인물의 성격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다.⁵⁹⁾

전통적 전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적인 규범의 선양이라는 전의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씌어졌으며 이러한 동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안된 형식인 3단 구성(도입부-행적부-논찬부)을 유지했다.

전통적 전의 도입부에서는 입전인물이 실존인물임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인물의 가계를 소개한다. 행적부에서는 입전인물의 행적이 서술되는데 그의 일생이 모두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 면모를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몇 개의 일화들만을 선별해서 서술한다. 이러한 행적부의 성격은 ‘敍事’라는 용어로 집약될 수 있는데 서사의 성격에 따라 단순한 사건의 나열에 그치느냐 혹은 인과적·유기적 관계에 의해 사건이

59)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p.427.

재배열되었느냐에 따라 전통적 전인지 변모된 전인지, 더 나아가 傳系 소설로까지 변모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논찬부에서는 입전인물의 행적에 대한 포폄을 통해 당시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중세보편이념인 유교적 가치를 확인·고취한다. 이것은 ‘議論’이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는데 전의 교술적 성격은 대체로 여기에 기인한다. 전통적 전은 대체로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훗날 많은 문인들은 正史 이외의 역사적 기록을 필요로 하였으며 정사에서 빠진 내용, 정사의 입장과 다른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무에서 外史를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사인 內史와는 상대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外사의 기능이라 하겠다. 즉 내사와는 사회적 입장이 다른 문인들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으로 새로운 평가안목을 가지고 기술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사의 보유가 되거나 아니면 비판적일 수가 있다. 원래 전이라는 기록물은 역사성과 아울러 문학성을 겸하고 있는데 外사를 표방한 전이라는 산문은 역사성이 감소하고 문학성을 위주로 하는 사전의 변체인 것이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면 소품문과 함께 새로운 전이 출현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이옥의 전과 같은 형태이다.

조선후기의 傳에서는 傳 樣式의 변모와 함께 입전의식에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 변화를 선도한 작가가 이옥과 박지원이다. 이옥의 전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더욱 큰 변모를 보이고 있는데 형식의 변화를 가져온 근본원인은 작가의 산문정신에 있는 만큼 입전의식이 형식적 변화를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옥의 傳은 모두 25편인데 그 중 市井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시정세태를 그린 것이 무려 11편에 달한다.⁶⁰⁾ 입전대상을 살펴보면 병어리, 장님, 가객 등의 천민으로

60) 작품과 인물의 처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협창기문> : 의협심 강한 창기
- <성진사전> : 행패 부리는 거지를 쫓은 성희룡
- <최생원전> : 무당을 배척한 자
- <정운창전> : 바둑 잘 두는 사람
- <신아전> : 병어리 대장장이
- <장봉사전> : 음식으로 점을 치는 사람
- <가객송실술전> : 서울의 가객
- <유광억전> : 과거 글을 파는 자

부터 이름없는 부녀자, 유생, 생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옥은 그가 직접 목격한 체험담 그리고 향간에 떠도는 야담 등을 두루 수집하여 전통적 전의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전은 전, 야담, 소설의 속성을 두루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⁶¹⁾

<심생전>은 傳樣式의 일반적 체제인 도입부·행적부·논찬부의 구조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전대상과 입전의식에 변모를 보이며 실기성과 의론적 성격을 탈피함으로써 전의 양식적 규범성을 벗어나고 있다. 즉 <심생전>은 조선후기 전에 나타나는 ‘입전인물의 다양화’ 현상과 유사해 보이지만 세태를 비판하는 등 직설적 토로가 드러나지 않고 작가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옥의 작품은 대부분 중세사회에 직접적으로 반항하는 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식에 반하는 인물을 내세우면서도 그 인물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특이한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⁶²⁾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考究해 보도록 하겠다.

1. 서사의 구성

<심생전>은 사랑 이야기이다. 士族의 신분을 가진 남자와 중인계층의 여자가 서로 만나 헤어지는 비극적 사랑을 그린 것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심생은 서울 양반 계층으로 어느 날 운중가에서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고

<심생전> : 서울의 양반

<장복선전> : 평양 감영의 아전, 협객

<이홍전> : 서울 시정의 사기꾼

61)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 연구』, 태학사, 1991, p.47.

62) 김미현, 「<심생전>의 서술시각과 작가의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돌아오다가 홍보에 싸여 업혀가는 한 여자를 보게 된다. 그 아름다움에 반해 따라가 보니 은퇴한 戶曹計士의 딸이었다.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 밤마다 그녀의 집 담장 넘기를 계속 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었다. 방 안에서 언문소설을 읽는 처녀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인다. 한 달을 거듭한 후에야 비로소 뜻을 이루게 된다. 심생의 진실된 사랑을 안 처녀는 심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이고 자신의 부모를 설득시킨 뒤, 동침한다. 그로부터 심생을 위하여 산뜻한 의복을 정성껏 마련해 주었으나,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 보아서 감히 입지 못한다. 심생의 부모가 아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글공부를 구실 삼아 북한산 산사로 보낸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처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처녀가 심생을 연모하다가 마침내 병을 얻어 죽어가며 하직인사를 하는 내용이었다. 심생은 슬피 울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후에 심생은 붓을 던지고 무인이 되어 벼슬이 금오랑 이르게 되나 일찍 죽고 만다.

심생과 여인의 이야기 뒤에 논평이 덧붙여 작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와 이옥의 평이 서술되어 있다.

임란 이전만 해도 신분제가 비교적 엄격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두 남자가 서로 인간적인 사랑을 나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성립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임·병 양란 이후 권력층의 핵심을 이루는 양반의 일부가 대토지 소유자로 변모하거나 권력의 주변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향반 토호가 있는 반면, 상당수의 양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반 농민층과 거의 다를 바 없는 殘班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양민들 중 일부는 향상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관문서의 소각, 空名帖 구입 등을 통하여 양반층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⁶³⁾ 중인들도 계급적 한계 때문에 관인으로의 진출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지만 일반 평민에 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며 더욱이 상당한 교양을

63)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6.

소유하고 있었다.

<심생전>에 등장하는 여인도 은퇴한 戶曹計士의 딸로서 중인신분인데 심생을 위해서 좋은 의복을 많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 면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이 풍족함을 알 수 있고 諺解와 稗說 등을 읽는 것에서 그녀의 문학적 교양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역시 중인출신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결국 이들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인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비극적 사랑은 여타의 이야기들에 비해 훨씬 감동의 심도를 더하면서 신분제의 질곡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생전>의 서사를 남녀 주인공의 행위의 발전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A. 서두	①심생은 양반출신으로 약관에 얼굴이 준수하다.
B. 사건	②심생이 임금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다 하인 등에 업혀가는 한 처녀를 발견한다.
	③호기심에 따라 가다 소광통교에서 돌개바람에 보자기가 걸힌다.
㉗만남~결합 (②~⑭)	④서로 눈길이 마주치고 여자는 흥조를 띠고 가버린다.
	⑤심생은 그녀의 뒤를 쫓아 그녀 집의 내력을 듣는다.
	⑥매일 담을 넘어 들어가 그녀의 방 밖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나오는 일을 되풀이한다.
	⑦여자는 날이 갈수록 괴로워한다.
	⑧스무날 췌 되는 날 여자가 심생에게로 나온다.
	⑨심생은 참지 못하고 마루에 서 있는 처녀의 손을 잡았다가 처녀의 기지로 내쫓김을 당한다.
	⑩여자가 돌아가 빗장을 지른다
	⑪심생이 변하지 않고 문 밖에서 기다린다.

㉔이별~죽음 (⑮~⑱)	⑫삼십일 췌 되는 날 처녀는 밖에 있던 심생을 방으로 맞이한다.
	⑬여자가 자신의 부모를 설득한다.
	⑭여자의 부모 목인 하에 심생과 여자가 결합한다.
	⑮심생이 자기집 식구들을 의식하고 행동한다.
	⑯심생의 잦은 외출을 의심한 그의 부모가 산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명령하여 산으로 들어간다.
	⑰기다리다 지친 그녀는 산에 있는 심생에게 편지를 보내고 죽는다.
	⑱심생은 붓을 던지고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요사하고 만다.
C. 결말	⑲작가가 심생의 이야기를 들은 경위와 글을 쓴 이유를 설명한다.

<표1> <심생전>의 서사과정

1) 결연 과정의 확대

여기에서 A와 C는 사건과의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초점을 B에 맞추기로 한다.

위에 나타난 서사단락은 주인공들의 결연과정으로 볼 때 만남, 기다림, 결합, 이별의 순서로 나뉘볼 수 있다. ②부터 ④까지가 만남이고 ⑤부터 ⑪까지는 기다림, ⑫부터 ⑭까지는 결합 그리고 ⑮부터 ⑱까지는 이별과 그로 인한 죽음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만남은 3항목, 기다림은 7항목, 결합은 3항목, 이별은 4항목으로 기다림의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훨씬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만남에서 기다림, 결연에 이르는 과정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시

간의 흐름과 함께 섬세한 묘사를 위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연과정의 확대는 서사적 흥미를 최대한 끌어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생전>에서 서사적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바로 야담에서 주로 발견되는 생략과 배제에 의한 호기심 유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⁶⁴⁾ 결연 대목에서 처녀가 방문에 자물쇠를 걸고 분명한 거절을 표시하거나 심생을 속이는 등 애정에 대한 심생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절차는 확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험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바로 드러난 심생의 목적과 숨겨진 처녀의 의도를 병치하는 서사방식이다. 처녀의 방문 앞을 지키는 심생의 행동은 처녀의 마음을 얻으려한다는 게 분명함을 알 수 있지만 광통교에서 심생과 마주칠 때만 해도 부끄러워하며 심생에게 마음이 있음을 나타냈던 처녀가 심생 앞에서 방문을 닫아서는 태도라든지 잠 못 이루고 뒤척대거나 심생이 웅크리고 있는 모퉁이로 불쑥 찾아든 행동은 그의 의도를 쉽사리 짐작하기 어렵다. 또한 심생의 20일간의 방문 기간 동안 처녀가 보여주는 행동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묘사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고 나름대로 추측해 보게 한다. 이처럼 어떤 단서도 제시되지 않은 채 궁금증만 축적되어 있는 순간 처녀가 부모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해결된다.

작자는 이처럼 독자의 의혹이 최대한으로 증폭된 순간 처녀의 발화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생략해 왔던 저간의 상황을 돌연 설명해 준다. 서사적 긴장의 끈을 최대한 팽팽하게 만든 후에 갑작스레 그 줄을 놓아 버림으로써 순간적으로 해소시키는 극적제시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생전>의 결연대목은 이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기법에 의해서 중인 여성이 사족 남성의 구애를 받아들이기까지 그녀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심리적 갈등의 추이를 긴장감 있게 서사화 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와 같은 결연과정의 확대양상은 사족 남성과 중·하층 여성의 결연이 갖는 비밀상성과도 관련이 있다. 비밀상적인 사랑과 신분 차이 혹은 불륜문제가 중·하층

64) 권도경, 『조선후기 전기소설사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p.107.

여성들의 신중한 태도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심생전>, <包衣交集>⁶⁵⁾의 여주인공들은 사족 남성의 애정에 대해 이후 닥쳐올 현실적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로 인해 남성의 구애를 쉽게 허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하층 여성들의 태도는 사족 남성들의 태도와 상반된다. 남성들은 일단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가 결연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한다. 남성들은 어떻게든 일단 결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여성들은 그들의 충동을 저지하고 애정에 대한 진중함을 확인하거나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주저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과 결연에 대한 남녀 간의 일치하지 않는 태도는 결연절차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변심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결연과정의 확대는 심생과 처녀의 만남에서부터 결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서사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임금님의 거동을 보기 위해 운중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 자주색 명주보자기에 덮여 여종의 등에 업혀가는 한 처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심생은 보자기 속의 사람이 어린 계집아이가 아니고 처녀라는 것을 짐작했다. 이에 심생이 그녀의 뒤를 쫓게 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 보자기가 걷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 준수하고 풍정이 넘치는 심생과 설핏 봐도 절색인 처녀의 만남은 인간적 본능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남성을 만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 감정의 발로이며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才子佳人形의 등장인물은 작품에 흥미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서사과정이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의 진행에 있음을 전제하고 <심생전>의 구성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본다.

65) <包衣交集>은 1864년 서울을 주 무대로 한 고전소설 작품으로 작가는 알 수 없다. 여주인공 초옥은 도시 상민의 유부녀지만 초라한 양반을 사랑한다. 미모와 지성에 주체적 열정까지 갖추고 그에 어울리는 남성과의 사랑을 꿈꾸지만 시대적 윤리, 남성들의 이기심 등의 장애에 부딪혀 상처 받고, 타협보다는 자기 생을 선택하는 여성이다.

발단 ②~④	심생과 처녀가 우연히 만남
전개 ⑤~⑭	여러 가지 고비 끝에 부부의 정을 나누게 됨
위기 ⑮~⑰	수상히 여긴 심생의 부모가 심생을 산으로 공부하러 갈 것을 명함
절정 ⑱	기다리다 지친 처녀가 심생에게 편지를 보내고 죽음
결말 ⑳	심생도 붓을 던지고 무인으로 살다 일찍 죽음

〈표2〉 〈심생전〉의 구성단계

〈심생전〉은 크게 만남과 이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야기도 사뭇 흥미와 긴장감을 지니고 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질서가 유지되어 있고 상호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점차 한 단계씩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락 중 어느 하나가 생략되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작품의 전체적 질서와 무관한 傳의 삽화식 구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삽화는 전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락인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며 서술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측면이 있다.⁶⁶⁾ 이와는 달리 〈심생전〉의 단락은 어느 하나를 빼버리거나 순서를 바꿀 경우 작품의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각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생전〉에서는 처음에 시작되는 한 두 사건만으로 이 작품이 던져주는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건과 사건이 서로 꼬리를 물면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독자의 호기심을 고조시키므로 끝에 가서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생전〉은 조선 후기 서사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닐 만큼 서사의 긴밀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⁷⁾ 실제로 〈심생전〉이 획득하고 있는 서사의 긴밀성은 우리 고전 서사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생전〉의 전개부는 우연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객관적인 서술시각에 입각하여 사건이 형상화되고 있으며 인물의 행위 장면 역시 구체적인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다.

66) 정병호, 「심생전의 서술방식과 의미지향」, 『문화전통론집』 창간호, 1993. p.413.

67) 김균태, 「이옥의 문학기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85, p.188.

2) 서사의 대립 구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생전>의 서사는 만남에서 결합 그리고 이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이 서로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⁸⁾

㉞만남~결합	㉞이별~죽음
진정의 실현과정 색채의 화려함 시간·공간의 축소 행위의 내면화 심화 세부묘사에 의한 서사적 전개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	진정의 결렬과정 무채색의 이미지 시간·공간의 확대 행위의 외부적 전개 사건의 요약적 서술 비극적으로 인식하는 세계

<표3> <심생전>의 대립구조

㉞의 만남에서 결합에 따르는 시간·공간 단위의 축소와 행위의 내면적 심화와의 긴밀한 관련은 바로 심생의 집요한 갈망과 노력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양반 사족인 심생의 행위는 유교적 사회 제도 안에서 양반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 즉 이때의 심생은 양반계층의 자제로서가 아니라 젊음의 열기를 품은 남자로서 또래의 처녀에게 훌쩍 반하는 자연스런 감정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옥이 말하는 眞의 문학관, 다시 말해 眞情이라 일컬어지는 남녀지정의 자연스런 발로라 할 것이다. 처녀도 마찬가지로이다. 겉으로는 무관심한 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

68) 서사의 대립구조에 대한 <표3>은 전수연의 논문(「<심생전>의 양식적 고찰」, 『이화어문논집』 9집, 한국어문연구소, 1987)과 신희경(「<심생전 연구>」, 『돈암어문학』 15집, 돈암어문학회, 2002)의 논문을 참고하였음.

나 속으로는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심생이든 처녀든 본능에 가장 충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의 남녀로서 연정에 끌리어 서로 당기고 밀고, 밀고 당기는 그 과정 중에는 수없는 머뭇거림이 있다. 그 머뭇거림의 원인은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과 결합의 과정은 그만큼 길게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조선조 사회는 명분이나 지조, 의리를 추구하는 집단적 가치추구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개인적 욕구달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눈뜨는 시기라는 것을 심생의 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심생과 처녀, 두 사람의 만남은 심생이 계집종에게 업혀가는 처녀를 보고 따라가면서 시작된다. 약관의 심생은 비슷한 또래의 처녀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밝고 화사하다. ‘자줏빛 명주 보자기’와 ‘붉은 비단신’, ‘복숭아빛 뺨에 버들잎 눈썹’, ‘초록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와 분’은 처녀의 모습이고 ‘쪽빛 옷에 초립’을 쓴 미소년은 심생의 모습이다. 복숭아 빛, 다홍, 연지 등은 모두 적극적이며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다. 이러한 색채 이미지는 이후 심생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구애의 과정에 긍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쪽빛 옷에 초립을 쓴 양반 자체인 심생의 이미지도 중인 처녀를 설레게 했을 것이다.

이들의 만남은 이처럼 밝고 화려한 색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후 일어나는 일들에서는 그 화사함이 가시고 무채색의 비극만 남아 있다. 남녀의 진정이 실현되는 화려한 순간과 그 진정이 결렬되는 과정의 비극성을 무채색의 대립적 이미지로 장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㉔에서 긴장감 있게 구성하여 관심을 집중시킨 것과 달리 ㉕에서는 시선을 외부로 분산시킨다. 시간과 공간이 확대되고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별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둘 사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류에 떠밀리고 마는 형국이다. 남녀지정이라는 천리에 의해 만남은 이루어졌으나 견고한 사회의 벽 앞에서는 참으로 무기력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입신출세를 위해 과거공부에 매진하는 심생의 행위는 양반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㉔에서 보여주었던 집요한 구애는 ㉕에 이르러 원망만 고조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㉗와 ㉘의 이러한 대립적 구조는 비극적 상황을 돋보이게 한다. 작자는 심생의 집념과 여자의 신중한 결단에 합리성을 부여함으로써 비극적 상황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심생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자의 이러한 의도는 유서에서 여자의 입을 빌려 토로한다.

또 여자는 출가하면 비록 종년이라도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가 있사오리까. 소녀 같은 몸은 남의 속임을 받아 몇 달이 지나도록 일찍이 도련님 댁의 늙은 여자 하인 하나도 보지 못하였사오니 살아서 부정한 자취를 남겼고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귀신이 될 것이라, 이것이 둘째 한이옵니다.⁶⁹⁾

여자는 시집을 갔으면서도 시댁 식구들의 몇몇한 대접은커녕 늙은 여종 하나도 못 만났음을 들어 심생에게 속임을 당하였다고 원망을 하고 있다. 그녀는 유서를 통하여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몇몇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의 비극과 자신의 병의 원인을 심생에게로 돌리고 있다.

여라가 외람되이 늙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주진지계가 이제 단망이옵니다. 이는 소녀가 아무 낙이 없이 시름하다가 마침내 병으로 죽음에 이른 까닭이옵고……(후략)⁷⁰⁾

<심생전>에서 작자는 인간적 성실함의 변질에서 초래된 비극적 사랑을 구현하고자 했다. 심생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적 흐름이나 가치추구의 의미변화를 어렵듯이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무하다. ㉗에서 보여준 심생의 태도는 남녀지정의 자연스런 발로로서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이지만 ㉘에서 드러난 죽음의 결말은 비극적 세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가는 이러한 서사의 대립구조를 통

69) 전집2, p.360. <심생전>: 女子之嫁也 雖 丫鬢桶의 非倚門倡伎 則有夫婿 便有舅姑 世未有舅姑所不知之媳婦 而如妾者 被人欺匿 伊來數月 未曾見郎 君家一老鬢 則生爲不正之跡 死爲無歸之魂矣 此二恨也.

70) 앞의 책, p.360. 女蘿猥托於喬松 而朱陳之計 以此虧望 則此妾之所以悒悒 不樂 終至於病且死.

해 당대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전반에서는 세부적 행위묘사에 의한 전개를 하고 있는 반면, 후반에서는 요약적 서술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심생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서술 방식은 그려내기, 즉 보여주기의 방법이다. 서술방식은 독자에 대한 서술자의 전달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여주기와 말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보여주기 방식에서는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간접적으로 제시만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데 비해 말하기 방식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독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설명해 준다. 이런 차이로 인해 보여주기에서는 대상이나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사실적 묘사의 방법이 활용되고 말하기 방식에서는 대체로 요약설명이 많이 활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연설명도 구사된다.

<심생전>에서는 특히 두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심리상태가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①심생은 걸으로 그 몸뚱이를 겨냥해보고 어린애가 아닌 줄 짐작한 것이다. 그는 마작 따라붙었다. 그 뒤통무늬를 밟다가 더러 소매로 스치고 지나가보기도 하면서 계속 눈을 보자기에서 떼어 놓지 않았다.

②겨우 初更인데도 베개에 엎드려 자주 손으로 벽을 두드리며 긴 한숨 짧은 탄식을 내뿜어 숨결이 창밖까지 들렸다. 하루 저녁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다.

①에서는 심생이 그녀를 미행하는 과정이 대단히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으며 독자는 이를 통해 짝을 구하고자 하는 심생의 적극적인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②는 신분적 차이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예견하고서 전전반측하는 처녀의 모습을 그린 단락이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상태를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적 묘사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상태를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배경제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서사문학에서 이야기의 내용이 즐거리보다 그려내기(보여주기)에 기울어진다는 것은 작가의 문학적 수식과 역량이 남다름을 의미하며

작품이 훨씬 근대성을 띠게 된다⁷¹⁾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옥 문학 전반에 걸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반부에서 그녀가 부모를 설득하는 대목이나 후반부에 들어있는 국문편지 등에는 보여주기 방식보다 말하기 방식이 채택되고 있어 작품의 전체적인 조화가 흐트러지고 있는 양상이다. 심생이 부모의 요구에 의해 절로 공부하러 간 데 이어 처녀가 병들어 죽고 그 후 심생 또한 일찍 죽었다는 요약적 서술은 사건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문체의 근대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메시지전달의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부의 느린 진행에서 보여주었던 흥미와 긴장감은 후반부의 사건 전달식 빠른 전개에도 불구하고 긴 여운을 남기고 있으며 아울러 결말의 비극성을 돋보이게 한 셈이다. 따라서 <심생전>은 인과관계에 의한 유기적 짜임새를 갖추고 보여주기 방식과 말하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구성의 심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겠다.

2. 갈등의 양상

<심생전>은 전반부에 나타나는 심생의 집요한 구애 못지않게 이별과 죽음으로 점철되는 후반부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주인공의 세 가지 한이 그녀의 현실적 처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매우 절실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여주인공의 비극적 처지에 대한 작가의 깊은 이해와 관심 없이는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에게 닥친 비극의 근본원인은 서로 다른 신분 때문이고 그것은 사회적 갈등에 속한다. 말하자면 심생과 처녀는 신분제라는 사회적 제약에 갇혀 있으며 그 틀을 어길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생전>

71) 옥치곤·김정호, 「이옥의 한문소설연구」, 진주산업대논문집, 1999, p.368.

전반에서 신분제의 모순에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갈등은 철저하게 내면화되어 나타날 뿐이고 심생과 처녀 둘 다 무력한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갈등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인물의 내적갈등

남주인공 심생은 양반계층의 미소년이고 여주인공 처녀는 중인인 호조의 노퇴가의 딸이다. 그들은 임금의 거동을 보기 위해 운중가에 나왔고 돌아가는 길에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⁷²⁾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양반의 자제라는 것과 중인의 딸이라는 신분이 처음부터 장애로 가로 놓이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결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처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낭만적 상상은 심생을 한없이 처녀의 방앞에 세워두었을 것이나 그 사랑이 불가능한 현실은 또 그를 어쩔 수 없이 머뭇거리게 했을 것이다.

담을 넘은 첫날, 심생은 ‘바스락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새벽이 될 때까지 있다가 도로 담을 넘어 나온다. 한참을 방황할 만큼 마음을 빼앗긴 여자의 방 앞에 당도하고자도 심생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후 나타나는 처녀의 행동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삼경 쬐에, 계집에는 벌써 깊이 잠들었고, 율녀는 그제야 불을 끄고 취침하였다. 그런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무언가 고민하는 모양이었다.⁷³⁾

처녀는 심생이 찾아간 첫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녀

72) 두 인물의 직접적 대면은 또 한 차례의 바람이 불고 나서야 가능했다. 돌개바람은 두 사람의 만남이 운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73) 앞의 책, p.356. 至三鼓許 媿鬢已熟寐 女始吹燈就寢 而猶不寐者久 若輾轉有所思者

의 고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스무날 동안 계속하였으나, 그래도 그는 게을리 아니 하였다. 쉼녀는 초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기도 하다가 밤중에 이르러 불이 꺼지는데, 이내 잠이 들기도 하고 더러 번민으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하는 것이었다. 6,7일이 지나자 문득 몸이 편치 못하다고 겨우 초경인데도 엎드려 자주 손으로 벽을 두드리며 긴 한숨 짧은 탄식을 내쉬어 숨결이 창밖까지 들리었다.⁷⁴⁾

처녀는 운중가에서부터 심생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으며 결국 담을 넘어 자신의 침실 아래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본 심생은 ‘쪽빛 초립’을 입은 양반집 자제였는데 그 사실이 처녀가 고민하게 했던 이유였던 것이다. 즉, 양반집 자제인 심생과 중인집 처자인 자신이 결합하는 것을 당시 사회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불행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고민하는 것이다. 심생이 그녀의 방 앞에 도달하고서도 30일을 기다린 것 역시 그도 처녀와의 결합으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심생과 처녀는 서로 끌리는 남녀 간의 지극한情理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나 현실의 벽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생은 담을 넘어 처녀의 방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으로, 방 안의 처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한숨을 쉬는 것으로 그 갈등의 양상을 내보이고 있다. 둘 사이는 신분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내적갈등에 휘말려 더욱 고조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2) 갈등의 심화

74) 위의 책, 如是者二十日 生猶不怠 女始則或讀小說或針指 至半夜 燈滅則或寐 或煩不寐矣 過六七日 則輒稱「身不佳」纔初更 便伏枕 頻擲手于壁 長吁短歎 聲息聞窗外.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의 결연이 이루어진 것은 天地自然之理라고 할 수 있는 남녀 간의 만남, 그 眞情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고민, 갈등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더욱 심화된 갈등은 그 이후에 등장한다. 심생의 집안에서 그 사실을 알고 심생을 산사로 공부하러 보내버린 것이다.

그러나 심생이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집에서는 그가 바깥에서 자고 오래 돌아오지 않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으라는 명이 내렸다. 심생은 마음이 몹시 불만스러웠지만 집의 압력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이끌리어 책을 싸들고 북한산성(北漢山城)으로 올라갔다.⁷⁵⁾

이후 처녀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버린 심생 때문에 결국 병이 들어 죽고 마는 것이다. 자신의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좌절감에 처녀는 한을 품고 죽은 것이다.

여라(女蘿)가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주진지계(朱陳之計)가 이제 단망이 옵니다. 이는 소녀가 아무 낙이 없이 시름하다가 마침내 병으로 죽음에 이른 까닭이 옳고, 이제 고당학발(高堂鶴髮)은 영원히 의뢰할 곳이 없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첫째 한이 옵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비록 종년이라도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가 있사오리까. 소녀 같은 몸은 남의 속임을 받아 몇 달이 지나도록 일찍이 도련님 댁의 늙은 여자 하인 하나도 보지 못하였사오니, 살아서 부정한 자취를 남겼고, 죽어서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될 것이라, 이것이 둘째 한이 옵니다.

부인이 남편을 섬기며 음식을 장만하여 공궤하고 의복을 지어서 입으시도록 하는 일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도련님과 상봉한 이후 세월이 오래지 않음도 아니요, 지어 드린 의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한 번도 도련님께서 한 사발 밥도 집에서 자시게

75) 앞의 책, p.359. 生雖秘之深 而其家 疑其宿於外 久不歸 命往山寺做業 生意怏怏 而迫於家 且牽於儕友 束卷上北漢山城

못하였고, 한 벌 옷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으며, 도련님을 모시기를 다만 침석(枕席)에서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셋째 한이옵니다.⁷⁶⁾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을 만큼 지순한 처녀는 자신의 존재를 시부모가 모르는 것,
심생을 손수 봉양하지 못한 것 등 떳떳하게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사랑이 당
대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한으로 여기며 죽어가고 있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에의 맹
목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한으로 여기며 결국 죽음에 이른다. 심생 역시
마찬가지다.

심생은 이 편지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울음과 눈물을 쏟았다. 이제 비록 슬프게 울
어보나 무엇하겠는가. 그 뒤에 심생은 붓을 던지고 무변이 되어 벼슬이 금오랑(金吾
郎)에 이르렀으나 역시 일찍 죽고 말았다.⁷⁷⁾

<심생전>의 애정갈등은 사족 남성인 심생의 소극성과 그 집안의 반대로 인해 빚어
지고 있으며 심생과의 혼인을 원하는 중인여성인 처녀와 여성 집안의 소망은 이로 인
해 좌절되고 있다. 사족남성과 중인여성 간의 사랑을 좌절시키는 요인이 중인여성과
그 집안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족남성 쪽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주인
공인 심생의 태도와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일은 필수적 요인이다. 마찬가지로 처녀를
앞세운 여성중심적 서술시각을 보이는 작가의 지향성을 파악하는 일도 마땅히 뒤따라
야 할 부분이다.

76) 앞의 책, pp.360~361. 女蘿猥托於喬松 而朱陳之計 以此虧望 則此妾之所以愜愜 不樂 終至於病且死 而高堂
鶴髮 永無依賴之地矣 此一恨也 女子之嫁也 雖丫鬢桶 非倚門倡伎 則有夫壻 便有舅姑 世未有舅姑所不知之媳
婦 而如妾者 被人欺匿 伊來數月 未曾見郎 君家一老鬢 則生爲不正之跡 死爲無歸之魂矣 此二恨也 婦人之所以
事君子者 不過主饋而供治 衣服以奉之 而自相逢以來 日月不爲不久 所手製衣服亦不爲不多 而未嘗使郎 喫一盂
飯於家 披一衣於前 則是所以侍郎君者 惟枕席而已 此三恨也 .

77) 위의 책, p.361. 生見書 不禁聲淚俱失 雖哭之慟 亦無奈矣 後生投筆從武 舉官至金吾郎 亦早歿而死.

IV. <심생전>의 의미 분석

<심생전>에 대해 이옥은 자신이 시골학당의 선생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라 했지만 기억의 완전한 재생이란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하다더라도 다시 살을 붙이고 골격을 재조정하는 작업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생전>은 작자 이옥의 관점에서 새롭게 지어진 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제보자인 시골학당의 선생은 심생의 이야기를 마음만 굳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작자인 이옥은 <情史>의 보유로서 심생의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술의 초점이 남녀 간의 사랑과 신분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제보자의 시각과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심생전>이 제보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단순히 옮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는 대목이다.

작품의 총체적인 구조 파악에 역점을 둔 Ⅲ장의 구조 분석에 이어 IV장에서는 작중 상황에 대한 등장인물과 서술자의 태도를 살펴보고 작가가 구현하고자 세계, 즉 작가의 의미지향을 살피는데 초점을 두기로 하겠다.

1. 등장인물의 태도와 의미 지향

1) 남주인공 심생

약관인 심생은 용모가 준수하고 풍정이 태탕하며 신분은 서울 사족이다. 처녀와 연분을 맺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행동했지만 일단 처녀와 그녀의 집에서 용납이 되고 난 뒤에는 소극적이 되었다가 제도나 인습에 행동으로 대결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저항하다 죽었다고 볼 수 있다.⁷⁸⁾ 사랑을 성취하기까지는 맹렬하였으나 그 후

78) 홍통희, 「이옥의 전과 심생전 고」,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에는 소극성으로 일관했다. 남주인공 심생의 태도를 두 사람의 결연과 그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심생을 통해 지향하고자 한 바를 짚어 보도록 한다.

(1) 眞情을 향한 충동

심생은 30일 동안 처녀의 집 담을 넘으면서 집요한 구애작전을 편다. 심생과 처녀는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터이다. 심생이 보자기에 싸여 업혀가는 처녀를 뒤쫓을 때 처녀 역시 보자기 사이로 은근한 눈길로 심생을 주시하던 참이었고 그런 순간에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 보자기가 걷히고 심생과 처녀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후 심생은 처녀의 뒤를 쫓게 되고 담을 넘는 구애를 거듭한다. 자신은 양반사족이고 처녀는 호조계사의 딸, 즉 중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 태도이다.

처녀는 심생이 월담해서 밤을 지새운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심생 역시 자신의 월담 행위를 처녀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심생은 오로지 처녀의 방 밖에서 처녀의 동정만을 살핀다. 20일째 되던 날 처녀가 자발적으로 심생이 앉아 있는 방 밖으로 나오자 그때서야 심생은 비로소 처녀를 붙잡는다. 그러나 심생은 ‘절 놓아주시면 뒷문을 열고 방으로 모시겠다’는 말에 속아 처녀를 놓아주고 만다. 그는 뒤늦게 처녀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통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처녀를 만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심생은 처녀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월담을 하되 결코 처녀의 방 안으로 뛰어들지는 않는다.

심생의 월담은 외적으로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심생이나 처녀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20일째 되던 날 밤에 처녀가 심생을 속인 것은 심생의 구애를 거절한 것이었다.⁷⁹⁾ 그러나 심생은 자신의 애정을 실현하기 위해 월담이라는 무언의 구애를 끈기있게 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마침내 심생은 처녀를 감동시키고 자신의 애정을 성취하게 된다. 결국 “사람이 일을 당해서 진실로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뜻을 세우면 규중의 처자라도 오히려 감동시킬 수 있다”는 평결부의 논평대로 심생

79) 처녀는 부모에게 심생의 월담사실을 밝히면서 “문에 쇠를 채워 거절해도 역시 오시었다”고 술회하고 있으나 처녀의 입장에서 그것은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은 끈기있는 자세로 자신의 애정을 실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심생의 집요한 구애의 배경에는 사족 남성의 충동적인 열정과 일시적인 교감의 문제가 스며들어 있다. 사족 남성들은 평소에는 계층질서를 넘어서서 중·하층민과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가 우연한 기회로 시정으로 이입되거나 일상의 특별한 계기에 의해 중·하층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애초부터 계층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동적인 열정과 일시적인 교감이 일단락 된 후 직면한 여성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현실적 의미를 알고는 당황하는 것이다.⁸⁰⁾ 심생 역시 호조계사의 딸인 중인처녀에 대해 충동적인 열정으로 사랑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집요하게 담을 넘고 있다.

이성을 향한 놀라운 집착 등은 풍정 태탕한 심생의 낭만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낭만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 사물의 배후에 있는 것보다 근원성을 향한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⁸¹⁾ 심생이 신분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끝내 멈출 수 없었던 까닭은 천지만물에 대한 성찰이고 眞情에 대한 본성적 충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요하게 담을 넘으면서도 그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의 구애가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처녀의 말대로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가 아직 진정되지 못하여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아는 양반택 젊은 도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가치에 대한 再考

심생은 애정을 성취한 이후에는 구애의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끈질기고 집요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 처녀가 정성껏 마련해준 의복을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 염려하여 입지도 못하며 자신의 행동을 의심한 부모가 절에 가서 공부하라는 명령에 아무런

80) 권도경, 『조선후기 전기소설사의 전면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p.154.

81) 윤채근, 「한국한문소설의 낭만성의 구조-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낭만성』, 국학자료원, 2002, p.26.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순종하고 있다. 이러한 심생의 행위는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것임에 틀림없다.

심생은 꿰어오르는 정념을 어찌하지 못하고 월담은 했으나 애초부터 예상되는 주위의 압력이나 사회적 관습 문제들을 헤쳐 나갈 고민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혈기에 욕정에 들떠서 구애한 것일 뿐 신의를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처녀의 집에서 믿음의 징표로 해준 의복을 거절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켈녀의 집은 본래 부유했다. 그로부터 심생을 위하여 산뜻한 의복을 매우 훌륭하게 마련해 주었으나 그는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봐 감히 입지 못하였다.⁸²⁾

심생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랑을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그녀의 부모가 해준 의복을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생의 이러한 태도는 사랑의 실현불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다. 젊음의 혈기로 구애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책임할 뿐이다. 요컨대 심생은 봉건적 신분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분이 다른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결연 전의 집요한 구애와 결연 후의 무책임하고 수동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매화외사의 논평에서 언급한 풍류낭자⁸³⁾의 열정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심생은 그 자신이 과거급제나 부귀공명의 욕망을 뚜렷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의 부모가 이러한 기대를 아들인 심생에게 걸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심생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과거 급제하여 문호를 일으켜야 할 아들이 신분이 낮은 계층의 여성과 사사로운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심생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꺼내지를 못한다. 이러한 심생의 태도 속에는 역시

82) 앞의 책, p.359. 女家素富 於是 爲生具華美衣服甚盛 而生恐見異於家 不敢服,

83) 앞의 책, p.362. 欲效此風流浪子耳 人之於事 苟以必得爲志.

제도와 관습, 사족으로서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 등을 내면화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심생이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일반적인 관념과 생활방식에서 일탈할 수 있는 과단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부모의 명에 제대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순순히 응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심생은 철저히 내면화된 지배계층으로서의 의식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건이 진전될수록 오히려 심생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애초부터 애정에만 탐닉했을 뿐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생이 산사로 간 후 처녀의 편지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쏟은 일과 붓을 던지고 무변이 되어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으나 일찍 죽고 말았다는 마지막 대목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무책임하고 수동적이기만 했던 심생이 이러한 변화를 보인 것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다는 의미이며 세계에 대한 저항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처녀의 유서로 인한 것이긴 했지만 심생의 이와 같은 자발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결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지극한 구애의 모습은 단순히 자신의 애욕만을 채우고자 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적 질서에 순응하고 지냈던 심생으로는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심생이 발전적 인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양반사족이라는 기득권에 더 이상 매달려 있을 까닭이 없다. 그것은 인간의 진정을 방해하는 요소일 따름이다. 그렇다고 대사회적인 대결을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즉 외면적인 사건과의 직접 대결이라기보다는 인간성의 내면적 변화일 뿐이지만, 이러한 내적 변화는 기존가치에 대한 再考를 불러올 것이며 그것은 곧 발전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그려낸 작중인물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심생의 변화 속에는 작가의 지향하는 바가 의도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여주인공 처녀

(1) 결연에 대한 신중성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고소설은 남녀 주인공이 만나자마다 순간적으로 교감하게 되고 이어서 곧바로 애정을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그 가운데 여주인공이 남주인공보다 적극적이거나 먼저 남주인공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⁸⁴⁾ 그런데 <심생전>의 처녀는 심생의 지극한 정성과 집념어린 구애에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한다. 그렇다고 심생과 처녀 사이에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자기 안에서 심생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추파를 들어 주시하기도 했고 돌개바람이 불고 보자기가 걸히는 순간 심생의 눈과 마주치자 놀라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했다.⁸⁵⁾ 그럼에도 처녀는 심생의 구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중을 기한다. ‘쪽빛 옷에 초립을 쓴’ 것을 보고 양반사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처녀의 신중한 면모는 심생이 월담하여 자신의 방 밖에서 밤을 지새운 지 20일째 되던 날 처음 심생을 대면하는 데서 일단 드러난다. 처녀는 광통교에서 우연히 심생과 눈이 마주친 이후 심생이 매일 밤 월담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체한다. 그러다가 20일째 되던 날 밤, 처음으로 심생이 앉아 있는 방 밖으로 나온다. 이때 심생이 어둠 속에서 불끈 일어나 처녀를 붙잡는다. 그러나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거짓말로 심생을 떼어 놓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하녀를 시켜 큰 자물쇠를 가져 오게 하여 심생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소리를 내어 자물쇠를 채운다. 이러한 처녀의 행동은 심생의 존재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아울러 심생의 구애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물쇠 채우는 소리를 밖에까지 들리도록 한 것은 신분차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심생에게 알려주기 위해 취해진 행동이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니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생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거절이라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상대방의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

84) 일례로 <이생규장전>을 들 수 있는데 담을 엿보는 이생을 보고 최랑이 먼저 시를 읊어 자신의 연정을 알리는 대목을 들 수 있다.

85) 고소설의 일반적인 표현상의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이를 상호간의 교감의 형성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더 강하게 들어 있는 것이다.

처녀의 신중한 면모는 그 뒤 10일 동안이라는 유예기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처녀가 분명하게 거절을 표시한 이후에도 심생은 계속 월담하여 처녀의 방 밖에서 밤을 지새운다. 처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10일이 지난 이후에 문을 활짝 열고 심생을 불러들인다. 그 단호한 거절과 10일간의 유예기간은 두 사람의 결연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국 처녀는 심생이 월담하여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운 지 한 달 만에 비로소 받아들인 셈이다. 심생의 지성과 집념어린 구애에 감복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으론 지금까지 보여준 심생의 행위로 보자면 신분의 벽쯤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터였다. 실낱같이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소실이 되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든 그것을 넘어설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⁸⁶⁾

그러나 처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생과 부부의 인연을 맺지는 않는다. 처녀는 심생을 방에 앉혀 놓고는 옷방으로 건너가 자기의 부모를 모시고 온다. 심생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는 부모에게 처녀는 그간의 사정과 더불어 심생과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말한다. 처녀의 부모는 갑작스런 일에 놀라지만 처녀의 이야기가 논리정연하고 합당한 데다 상대가 양반댁 도령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결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처녀가 신중을 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심생의 眞意 여부보다는 철저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처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심생과 부부의 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 날 밤부터 도련님이 안 오시는 날이 없이 이 방문 밑에 숨어 기다린 지 이제 이미 30일이 지났답니다. 비가 와도 오시고, 추위도 오시고, 문에 쇠를 채워 거절해도 역시 오시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서 동

86) 조선후기 야담에서는 부모 몰래 소실을 얻기 된 남자가 자기 친지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靑邱野談』의 <畏嚴舅悍婦出矢言>에서 젊은이는 아내 몰래 소실을 얻어 놓고 고민하다가 친구의 힘을 빌려 소실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게 되며, 『溪西野談』의 <李東岳>에서 동약은 우연히 얻게 된 소실을 자기 이모에게 맡겨 두었다가 성공한 뒤에 집으로 데려온다.

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는 새벽이면 나가는데 자기 홀로 창벽 밖에 서 있는 줄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지요. 제가 필시 개에게 물린 핑이 되는 셈이어요. 그리고 저분은 양반댁 도령으로 지금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가 아직 진정되지 못하여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바람과 이슬에 맞음을 돌보지 않으니 며칠 못가서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병들면 필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입니다. 비록 남이 모르더라도 반드시 음보(陰報)가 있게 됩니다. 또 제 몸은 한낱 중인(中人) 집 딸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절세의 경성지색(傾城之色)으로 꽃이 부러워할 만한 용모를 지닌 것도 아닌데, 도련님께서 술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지성을 바치되 이토록 부지런히 하십니다. 제가 만일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시어 복을 제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아!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동기간이 없으니 시집가서 데릴사위를 맞아 살아계실 때에 봉양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모시면 제 소망에 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뜻밖에 되었으니, 이 역시 하늘의 뜻이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87)

처녀는 심생의 지성, 심생의 월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자신이 받게 될 누명,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거절했을 경우 예견되는 심생의 죽음과 자기가 받게 될 陰報 등을 들어 심생과의 결연이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다. 처녀가 위에서 제기한 근거들은 하나 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견 위의 문제들이 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처녀가 심생의 집요한 구애를 ‘한갓 젊은 혈기’로 보거나 자기의 처지를 ‘개에게 물린 핑의 신세’로 말한 것 등은 사태를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이해한 결과일

87) 앞의 책, p.358. 適與一草笠郎君 相面矣 自其夕 郎君無夜不至 屏竢於此戶之下 今已三十日矣 雨亦至寒亦至 鎖戶以絕之 而亦至 兒料已久矣 萬一聲聞外播 隣里知之 則夕而入 晨而出 誰知其獨倚於窗壁外乎 是無其實而避惡名也 兒必爲犬咋之雉矣 彼以士大夫家郎君 年方青春 血氣未定 只知蜂蝶之貪花 不顧風露之可憂 能幾日 而病不作耶 病則必不起 是非我殺之而我殺之也 雖人不知 必有陰報 且兒身不過一中路家處子也 非有傾城絕世之色 沈魚羞花之容 而郎君見鶻爲鷹其致誠於我 若是其勤 然而不從郎君者 天必厭之 福必不及於兒矣 兒之意結矣 顧父母勿以爲憂噫 兒親老而無兄弟 嫁而得一贅壻 生而盡其養 死而奉其祀 兒之願足矣 而事忽至此 此天也 言之何益」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녀의 처지에서 보았을 때 이는 현실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자신은 중인의 딸이고 심생은 양반댁 도령인 바, 처녀는 자신에 대한 심생의 애정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신분의 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냉철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처녀는 결국 심생을 선택한다. ‘하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처녀 역시 심생을 사모했던 것도 사실이다. 처녀가 평소에 소망했던 것은 무남독녀로서 자기와 같은 신분의 데릴사위를 맞이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었다. 부유한 중인의 딸인 처녀에게 이러한 소망은 소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녀는 이러한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소망마저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포기하면서까지 심생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자기의 거절로 인해 심생을 죽게 할 수 없다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도 담겨 있다. 이렇듯 처녀의 선택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다. 요컨대 처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남녀지정의 진실함’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선택에는 심생에 대한 믿음도 작용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와도 오시고, 추위도 오시고, 문에 쇠를 채워 거절해도’ 담장을 넘어 구애를 거듭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진정성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에 처녀의 선택은 처음부터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는 해도 그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녀는 심생과의 결연을 통해 세계와의 화합의 가능성을 꿈꾸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화합은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처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작가의식의 반영으로 보아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2) 현실에 대한 도전

비장한 결심을 한 처녀는 마침내 심생과 결연을 맺는다. 앞에서 심생과의 결연은 세계와의 화합인 동시에 도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심생과의 결연은 분명

세계에 대한 도전이며 대결이다. 처녀가 그토록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세계와의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함이 곧바로 현실로 드러났다. 처녀는 심생에게 산뜻한 의복을 마련해 주었으나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봐 감히 입지 못하였다. 게다가 심생의 집안에서는 그가 바깥에서 자고 오는 것을 의심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으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심생은 순순히 명령을 따랐다. 그 바람에 처녀는 심한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처녀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애정과탄의 원인이 심생의 어정쩡한 태도와 무책임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유서에서 처녀는 자신의 세가지 한을 밝히고 있으며 그 중 심생의 집안으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과 심생에게 아내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대목은 처녀의 존재가 자신의 집안에 알려질까봐 노심초사했던 심생의 태도와 처녀의 부모가 지어준 의복을 입지 않았던 심생의 태도와 그대로 대응된다. 이는 심생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셈이다.

처녀의 이러한 태도는 참고 인내하고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전통적 여성성과는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일방적인信義 파기에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숨김없이 발화하고 있다. 죽은 후에야 유서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⁸⁸⁾고 하겠으나 유서가 지닌 의미의 파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녀가 남긴 유서는 심생과 자신이 겪은 일을 요약·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간의 일들을 다시금 상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편지라는 양식적 특성 때문에 발화자의 의식에 더욱 기울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 무책임과 소극성으로 일관했던 심생이 눈물을 쏟고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은 유서의 힘이다. 처녀의 유서가 대단한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 처녀의 죽음 또한 현실에 대한 저항과 도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생처럼 현실에 힘없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결실을 가로막는 세계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이다. 세계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이상 현실에서 찾을 수 없었기에

88) 권도경, 앞의 책, p.265.

최후의 수단인 죽음을 결행한 것이다. 그녀의 죽음이 당장 신분제의 붕괴라는 성과를 담보해낸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고 지내던 심생에게 심한 충격을 가한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그녀의 죽음은 심생까지 자신과 같은 저항의 길에 동참시키는 파장을 일으켰으며 일반 독자에 이르러서 더욱 共鳴하는 바가 되었을 터이다.

2. 서술자의 태도와 의미 지향

1) 서술 시각의 양면성

작품 속에 구현된 인물의 형상은 작가가 지닌 인물포착 시각과 작가의 세계관·인간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인물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인물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는가를 통해 작가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작가가 선택한 인물을 어떠한 구조 속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심생전>은 ‘만남’과 ‘이별’이라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서술자가 심생의 눈으로 여인을 묘사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여주인공에 대한 서술자의 거리가 최소화되어 있다. ‘만남’에 해당하는 전반부에서는 심생의 눈에 비친 처녀의 모습과 그녀에 대한 심생의 사랑을 그리고 있으며 ‘이별’의 후반부에선 유서를 바탕으로 한 처녀의 현실인식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서술시각의 이동을 통하여 남녀 모두에게 발언권을 준 셈이 되어 작품 전체에서 남녀의 대등한 관계가 구조적으로 실현된 것임을 의미한다.⁸⁹⁾ 이러한 서술태도는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89) 김미현, 「심생전의 서술시각과 작가의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 발전적 인물로서의 심생

<심생전>은 남주인공 심생의 신분과 용모 그리고 성정에 관한 소개글로부터 시작된다. 용모 준수하고 풍정 넘치는 심생은 임금님의 거동을 보기 위해 운중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만난 한 처녀를 마음에 두고 비가 와도, 날이 추워도,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녀의 집 담을 넘는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후에야 마침내 처녀의 허락을 얻어내고 꿈같은 날들을 보내지만 그 사실을 그의 집안에서 알게 되고는 북한산성의 선방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얼마 후 처녀가 유서로 남긴 언문편지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쏟는다. 그 뒤 심생은 붓을 던지고 무변이 되어 금오랑의 벼슬을 지냈으나 일찍 죽고 말았다.

심생이 중인처녀에게 반해 수없는 월담을 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사족의 삶을 영위해 왔던 심생의 집안에서는 한 순간의 일탈로밖에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애정 따위는 상관없이 심생을 선방으로 내쫓는 것이다. 심생이 처녀와의 결연을 집안에 알리지 못하는 것도 생득적으로 답습해온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식은 심생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젊은 혈기로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행위만을 거듭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과 억지로 이별을 해야 하는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도 대책도 없다. 그러나,

그 후 심생은 붓을 던지고 무변이 되어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으나 역시 일찍 죽고 말았다⁹⁰⁾

이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처녀가 죽고 나자 신분질서와 주변의 시선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상대의 죽음을 방치한 것에 대한 심생의 고뇌로 읽혀진다. 전형적인 사족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던 심생은 처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현실 세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또한 심생으로 대

90) 앞의 책, p.361. 後生投筆從武 擧官至金吾郎 亦早歿而死

변되는 작가의식의 표출이기도 한 것이다. 유교적 계층질서가 공고히 유지되는 사회에서 사족 남성이 중·하층 여성과의 사랑을 나몰라라 해도 그것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처녀 부모의 태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딸의 결정에 대해 일언반구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분의 벽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부모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절간으로 공부하러 가는 심생의 모습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주체성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심생은 양반자제이나 당대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드⁹¹⁾라고 본다면 소외문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지독한 소외를 경험한 인물이 보여주는 현실대응방식은 자연히 무력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녀의 편지를 받고 울음을 쏟은 심생은 비로소 자아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을 것이다. 무변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인생행로와 일찍 죽었다는 서술은 그러므로 주체가 되어 살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통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술자는 심생의 행위를 통해서 사족의 일반적인 계층적 시각의 모순을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서술자는 심생의 변화를 통해 발전적 인물로 그려냈다고 판단된다. 물론 외부적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독자에게 미칠 영향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심생의 심정변화는 충분히 발전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2) 도전적 인물로서의 처녀

<심생전>에서 보여준 서술자의 시각은 여성중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주인공인 처녀의 내부심리를 거리낌 없이 보여 줌으로써 그녀의 인생행로에 연민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중심적 서술시각의 경우는 근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측면에서 볼 때 전통관습의 희생자인 여성 인물들에게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⁹²⁾

91) 옥치곤·김정호, 「이옥의 한문소설연구」, 진주산업대논문집, 1999.

심생이라는 젊은 士族과의 사랑과 이별을 마지막 유서에 쏟아 놓은 처녀의 내면은 그 자체 그대로 당시 중·하층 여성들의 풍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이다. 당대의 신분질서 속에서 사족 남성과 중·하층 여성간의 애정은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정행태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 후기 중·하층의 의식적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중인층은 경화거족 중심의 권력집중과 왕권약화라는 조선 후기 정치·제도적 상황 속에서 부정축재, 역관무역 등으로 경제력을 획득하고 전문관료로서 경화사족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중인층은 문화적·이념적 차원에서도 상층 귀족문화를 모방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획득해 나갔는데 중·하층의 여성들이 고급한 한문학적 교양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심생전>의 여주인공 처녀도 중인계층의 여성으로서 그러한 의식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며 계층적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심생의 집요한 구애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전반부의 모습과 이별 후의 유서에 나타난 그녀의 의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심생의 집요한 구애에 대한 처녀의 반응은 그녀가 심생을 받아들이고 부모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처녀는 자신의 부모에게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심생을 만나게 된 사연과 그의 곡진한 애정,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정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처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현실을 냉철히 파악하고 있다. 보자기 사이로 마주친 초립도령은 양반의 자제라는 뜻이니 자신과는 신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젊은 혈기를 진정하지 못하는 도령은 밤마다 빠짐없이 찾아온다. 그를 도무지 무시하지 못하겠다. 소문도 소문이지만 모른 채하면 그가 병 나 죽을 것 같고 하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고 말 것 같다.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만다.

처녀의 말은 결국 심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술자는 처녀의 선택을 통해 天道自然之理로서의 眞情(男女之情)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앞에서 밝힌 작가 자신의 문학관과도 통하는 바, 서술자를 대신

92) 권도경, 앞의 책, p.200.

하여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현실의 높은 벽을 의식하고 있었던 처녀로서는 단순히 인간의 진정을 따랐다고만은 할 수 없다. 거기엔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이 깔려 있다. 심생과의 동침은 분명 일대의 결심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며 마땅히 세계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심생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첫 번째 도전이라면 유서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 저항이자 도전이라 할 것이다.

처녀의 유서는 심생과의 관계가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 나열되어 있으며 마치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욕망과 그 욕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원망하고 있다. 처녀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한과 며느리로, 아내로도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다만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그치고 만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판하고, 그것으로 인해 병들어 죽게 됨을 밝히고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신중하면서도 당찬 결정으로 남성을 받아들였음에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다. 처녀에게 거대한 현실의 벽을 깨뜨릴 아무런 힘도 없다. 애초부터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계층적 질서는 그녀가 대항해 볼 수 있을 만큼 결코 만만하지 않다. 결국 그녀는 죽음으로써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자 했다. 죽음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터, 처녀의 유서를 통해 작가는 남녀지정의 진정성과 그것이 실현되는 세상을 원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심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상황은 비극일 뿐이지만 그로부터 야기되는 覺性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매화외사의 평에 나타난 의미 지향

<심생전>은 작가가 스승에게서 전해들은 심생과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인 논찬부는 글쓴이의 의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심생전>의 논찬부는 매우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다. 행적부에서 보여준 서술자의 태도와는 달리 다소 엉뚱한 이야기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찬부에 해당하는 매화외사의 평은 다음과 같다.

매화외사는 말한다.

내가 열두 살 때에 시골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매일 동접들과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다. 어느 날 선생이 심생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서,

"심생은 나의 소년시절 동창이다. 그가 절에서 편지를 받고 통곡할 때에 나도 보았더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잊지 않았구나."

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풍류소년(風流少年)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일에 당해서 진실로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뜻을 세우면 규중의 처자라도 오히려 감동시킬 수 있거늘, 하물며 문장이나 과거야 왜 안 되겠느냐."

하셨다. 우리들은 그 당시 듣고 매우 새로운 이야기로 느꼈다. 뒤에 <정사>를 읽어 보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이를 추기하여 <정사>의 보유를 삼을까 한다.⁹³⁾

위의 내용에서 보면 서술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는 서술자가 풍류남아의 이야기, 즉 심생과 처녀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면' 규중의 처자라도 감동시킬 수 있으니 그러한 집념으로 과거공부에 매진하라고 당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情史』⁹⁴⁾의 보유로 삼을까 한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에는 분명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인이 죽고 심생 또한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의 주제가 심생처럼 이성을 향한 정열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서

93) 앞의 책, p.361~362. 梅花外史曰 余十二歲 游於村塾 日與同學兒 喜聽譚故 一日 先生 語沈生事甚詳曰 '此吾少年時 窗伴也 其山寺哭書時 吾及見之 故聞其事 至今不忘也 又曰 '吾非汝曹 欲效此風流浪子耳 人之於事苟以必得爲志 則閨中之女 尙可以致 況文章乎 況科目乎' 汝輩其時聽之 爲 '新說'也 後 讀情史 多如此類 於是 追記爲情史補遺

94) 『情史』는 馮夢龍(1574~1646)이 傳奇문장을 엮은 책이다. <정사유략> 또는 <정천보감>이라고도 한다. 남녀간의 정을 다룬 역대 작품들을 주제별로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작품 수는 860여 편이다.

당선생의 당부는 작품의 주제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당 선생을 끌어들이는 이야기의 제보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작품의 작자는 이옥이다. 그러므로 비록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에 배치가 되었다면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술자의 모호한 태도는 작품의 주제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작가의 의도이다. 작가는 <심생전>의 이야기가 전통적인 규범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이며 그래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 독자층이 제기할 비판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엉뚱하게 서당훈장이 말했다는 권학적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사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전망을 지닌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⁹⁵⁾ 이러한 사정의 이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이옥의 소외문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암 등의 실학과 문인들 역시 이옥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관념론과 봉건질서 자체에 대한 부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⁹⁶⁾

주제를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유광역전>도 <심생전>과 유사하다. 유광역은 실재한 인물로 科詩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것이 탄로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이다. 이곳을 위해서는 서울장안에서 사고팔지 않는 것이 없는데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시에서조차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과거제도의 폐단과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논찬부의 평에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유광역의 행위에 대해서만 일컫고 있을 뿐이다.

매화외사는 말한다.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는 자도 있고 미세한 터력과 형체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 팔 수 있으나 아직 그 마음을 파는 자는 있지 않았다.

95) 권도경, 앞의 책, p.207.

96) 박지원의 <허생전> 같은 경우에도 미완의 결말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작가의 현실개혁의지가 가져 올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로 보인다. 따라서 연암소설을 비롯한 동시대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당대의 士의식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어서인가? 유광역과 같은 자는 또한 그 마음까지도 팔아버린 자인가? 아! 누가 알았으랴. 천하의 파는 것 중에서 지극히 천한 매매를 글 읽는 자가 하였다는 사실을. 법전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라고 하였다.⁹⁷⁾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소수의 특권세력인 ‘閹閹’을 중심으로 과거의 부패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自派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재등용 시험인 과거의 시관을 自派의 인물로 결정하여 당락을 결정하고자 했고 심지어는 밀봉된 응시자의 성명을 뜯어보고 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의 부정부패는 서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지방에서 치르는 鄕試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⁹⁸⁾ <유광역전>은 이러한 과거의 폐단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논찬부에서는 유광역의 행위를 천하의 매매행위 가운데 최저의 것으로 간주하고 매시행위를 마음을 파는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유광역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자살을 하는 것을 군자다운 태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법전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는 말을 인용하여 광역의 행위를 은근히 옹호하는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작 과거를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부패가 만연한 현실에 대해 뜻을 접었다는 것을 문맥 속에 내포시켰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과거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뒷받침이 되어줄 만한 배후가 없다는 인식은 한미한 유생으로서 갖는 자의식의 한 부분일 터, 이옥은 유광역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옥은 신분제도나 과거제 같은 침해한 현실문제에 대해 전면에서 나서기를 주저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생득적 소외의식에다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이 빚어낸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서사작품을 쓰는 사람의 의식에는 역사의 보유로 기록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심생전>이 발표된 시기는 이옥이 梅花라는 별호를 쓴 시기인 32세(1791) 즈음

97) 전집2, p.353.

98) 김영주, 「문무자 이옥의 의식기저와 현실인식 태도」, 『동방한문학』 12, 동방한문학회, 1996, p.134.

으로 추정된다.⁹⁹⁾ 그는 이 시기에 왕성한 창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梅花外史』 편도 여기에 속한다. 『매화외사』에 수록된 작품들¹⁰⁰⁾은 대부분 傳과 補遺, 紀聞의 형식을 띠고 있고 이 형식은 서사문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당시 서사작품을 쓰는 사람의 의식에는 소설을 쓴다는 의식보다 역사의 보유로 기록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지배했다. 당시 이옥은 『板橋雜記』·『情史類略』과 같은 남녀 애정 내지 妓女를 소재로 한 明·淸 서적들을 애독하였다. 이는 이옥이 강조하는 문학에서의 남녀의 眞情, 또는 <심생전>과 같은 작품창작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작품의 주제 왜곡으로 나타나는 매화외사의 평과 정사의 보유로 삼고자 한다는 이옥의 言質인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둘 다 이옥이 처한 현실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옥의 작가의식, 즉 이옥의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작품 <蟬告>와 <蜘蛛賦>는 <심생전>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심생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옥은 한미한 유생으로서 내세울 양반 집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정계진출에도 제한을 받는 서족이었다. 이옥은 그러한 자신의 환경을 일찍이 자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문체반정으로 정계진출의 꿈이 무산되기 전에도 그는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고 일세를 울리는 일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을지 깊이 회의하고 갈등하였다. <蟬告>는 그러한 심경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이옥의 나이 32세 때(1791) 서울에서 방황하며 본가가 있는 남양 매화산 기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그리고 있다.

생용의 영광과 보불의 지위로 국가를 빛내고 일세를 울리는 일은 다만
그대가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도 장차 그대를 허여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세상에 그대가 없다고 하여 손실될 바가 없고, 그대에게 세상이 없어서
또한 욕될 바가 없다. 그러니 그대는 그대의 뜻을 행하고 그대가 좋아하는

99) 김동석, 「이옥의 매화외사의 비평과 그 서사적 의미」, 2006.

100) 「捕虎妻傳」, 「守則傳」, 「車崔二義士傳」, 「文廟二義僕傳」, 「浮穆漢傳」, 「柳光億傳」, 「申兵使傳」, 「蟬告」, 「所騎馬傳」, 「海觀」, 「馬上蘭傳補遺」, 「黃鶴樓事蹟考證」, 「南靈傳」, 「俠娼紀聞」, 「題梅花外史卷後」 등.

것을 따를 것이다. 그대가 돌아가지 않으면 누가 돌아갈 것인가? 매암이여,
매암이여. 마땅히 돌아갈 것이로다. (중략) 매암, 매암! 어찌 돌아가지 않으
리오?¹⁰¹⁾

이옥은 오래도록 서울에 머물면서 과거공부에 몰두하여 현실적 출세를 바라고는 있
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와 처자가 있고 친숙한 자연이 있는 매암¹⁰²⁾으
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다. 매암은 그의 귀의처이자 더 이상의 방황이나 갈등이 없는
은신처가 될 것이다. 한편, 문체로 곤욕을 치르던 시기인 1792년경의 작품으로 추정되
는 <蜘蛛賦>는 거미를 통해 세상을 우의하고 있다.

…… 아, 기린은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고 봉황은 유인할 수 없는 것이니 군자는 도
를 알아서 유설로써 재앙을 입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 삼가고 힘쓸지
어다! 그대의 이름을 팔지 말며 그대의 재주를 자랑하지도 말며 이옥으로 화를 부르지
도 말며 재물에 목숨을 바치지 마라. 경박하거나 망령되이 굴지 말며 원망하거나 시기
하지 말며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추어 오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더 큰 거미가 있으니 그 그물이 나보다 천 배, 만 배가 될 뿐이 아닐 것이다.

이자가 이 말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고 달아나다 세 번이나 자빠지면서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서야 몸을 구부리고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거미는
그 실을 내어 다시 처음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있었다.¹⁰³⁾

<지주부>에 등장하는 거미는 정연한 논리와 호쾌한 일침으로 李子를 질타한다. 거
미의 논리에 할 말을 잃고 달아나는 이자는 방의 자물쇠를 채우고서야 한숨 쉴 정도로
꼼짝을 못하는데 거미는 다시 종전처럼 그물을 치기 시작한다.

이 글에서 이옥은 거미를 내세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거미줄 같은 그물에 걸려 버둥대는 자신의 처지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

101) 전집2, p.207.

102) 이옥은 ‘내 집이 매화산 아래 있으므로 이에 매암이라고 자호하였는데 그 음이 매미소리와 비슷하다고 스
스로 유희한 것’이라 하였다.

103) 전집1, pp.93~100.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옥이 이 작품을 쓸 당사가 문체로 곤욕을 치르던 시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미줄은 이옥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것이다.¹⁰⁴⁾ 거미의 정연한 일침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신념과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셈인데 이옥은 결국 거미로부터 달아나 문을 닫아거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이옥은 현실과의 대결에서 좌절을 경험했으나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은 채 자신의 세계로 침잠해 버리는 것이다.¹⁰⁵⁾ 그리하여 여타의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고집해 나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심생전>에 드러난 작가 이옥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비극적 정조를 띤 애정소설은 대체로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주인공의 좌절된 사랑 이면에 놓인 사회현실을 심각하게 반성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¹⁰⁶⁾ 따라서 <심생전>은 논찬부의 주제 왜곡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진정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진정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사회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다만, 그 비판을 전면 에 내세우지 못하고 유교적 틀 속에 묶어 버린 것은 봉건적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시대 작가의 한계라고 하겠다.

104) 이정선, 「이옥의 <지주부>고찰」, 『한국언어문화』 2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05) 이옥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해 나갔지만 그것은 載道之器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戲作적 의미가 강한 일상적 담론을 통해서는였다. 해배 이후 남양에 머물면서 쓴 『백운필』이나 『연경』을 보면 그의 消閑的 글쓰기를 엿볼 수 있다. 토로서 출사의 길이 막혀버린 처지에, 더구나 사유의 다양성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일은 글을 쓰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글도 사회와 나라에 대한 거대담론이 아니라 생활 주변의 자잘한 것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백운필>에서 이옥은 새·물고기·짐승·벌레·꽃·곡식·과일·채소·나무·풀 등의 소재를 취해 동식물의 생태적 특성과 자신의 경험, 관련되는 민간의 전언을 포함시켜 다채로운 내용과 형식을 두루 수록하였으며 새로운 글쓰기 유형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연경>은 담배 관련 저작인데 연초 재배에서부터 담배의 제조공정과 방법,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 즐겁게 향유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다루고 있다. <백운필>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보잘 것 없는 사물이라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술에 착수하는 치열한 산문정신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06) 박희병, 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p.174.

V. 결론

세계사적으로 볼 때 18세기는 근대적 조짐을 보이는 시기였다. 당시의 조선 역시 성리학적 규범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때였다. 서구 계몽주의가 구시대의 정신적 권위와 사상적 특권과 제도에 반대하여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창하고 개선과 진보를 꾀하였듯이 조선은 주자학의 세례를 벗어던지고 실사구시의 합리성과 주체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문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때까지 금기시되었던 소품들이 중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문장은 반드시 선진양한을 본받고 시는 반드시 성당을 본받아야 한다는 당시의 불변의 진리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文無子 李鈺(1760~1815)은 조선후기의 한 文士로서 우리나라 稗史小品體 문학의 뛰어난 작가였다. 중세적 질서를 지탱하는 聖經賢傳의 사상 및 문체에서 벗어나 현실의 다양한 면모와 각양각색의 인물군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으며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통 문체가 아닌데다 봉건질서를 위협하는 불경스럽고 기이한 문체라 하여 배격되었고 그 때문에 出仕의 길이 완전히 막혀 버린 불우한 문인이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한 그의 문장은 중심에서 찾지 못한 주변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근대문학의 가교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情의 자유로운 발현을 중시하는 18세기 중엽의 문학의 흐름 속에서 이옥은 <이언>을 통해 인간의 자유로운 정감과 욕구표출에 대한 창작원리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이옥은 인간의 생활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정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眞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문학에서의 정이 관념적 정조였다면 이옥의 진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발현되는 情이라는 점에서 중세적 도덕관념과 배치된다. 이옥의 작품 <심생전>에는 진정에 충실한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심생전>의 이야기 구조와 그 구조 속에 들어 있는 의미 그리고 각각의

주인공들과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작품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심생전>의 구조분석에서는 서사의 구성과 서술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사의 구성은 남녀 주인공들의 행위의 발전을 중심으로 만남, 기다림, 결연, 이별, 죽음의 순서로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만남에서 결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이별과 죽음에 이르는 대목보다 훨씬 확대되어 있음을 보았다. 결연 과정의 확대는 치밀하게 계산된 기법에 의해서 중인 여성이 사족 남성의 구애를 받아들이기까지 그녀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심리적 갈등의 추이를 긴장감 있게 서사화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또한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질서가 유지되어 있고 상호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한 단계씩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사의 과정, 즉 만남에서 결연, 이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상호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만남에서 결연에 이르는 전반부는 긴장감 있게 구성하여 관심을 집중시킨 것과 달리 이별에서 죽음에 이르는 후반부는 시선을 외부로 분산시켜 시간과 공간이 확대되고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남녀지정의 자연스런 발로라 할 수 있는 眞情의 의미가 실현되고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서는 견고한 사회의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배치시켜 서사의 대립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서사의 대립구조를 통해 당대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심생전>에서 애정 갈등은 사족 남성인 심생의 소극성과 그 집안의 반대로 인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생전>의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족 남성 쪽의 일방적인 과거와 그에 대한 중인 여성의 대응 그리고 두 사람의 죽음은 조선후기 변화되어 가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생전>의 의미 분석에서는 이러한 남녀 주인공들의 태도와 작가의 의미 지향을 고찰해 보았다. 남주인공 심생은 풍류남자로서의 열정으로 결연에 성공하지만 이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철저히 내면화된 지배 계층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나 처녀의 유서를 받고 자신의 진로를 바꿈으로써 그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심생이 기존의 가치

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주인공인 처녀도 심생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교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심생의 구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매우 신중한 면모를 보인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불행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지만 결국은 비장한 결단을 하게 된다. 진정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계에 대한 처녀의 도전 의식이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생과의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겪은 후 유서로 남긴 편지에 자신의 한을 드러내어 그간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데 이 유서는 眞情을 가로막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원망과 저항,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술자는 서술 시각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만남’에 해당하는 전반부에서는 심생의 눈에 비친 처녀의 모습과 그녀에 대한 심생의 사랑을 그리고 있으며 ‘이별’의 후반부에서는 유서를 바탕으로 한 처녀의 현실 인식 태도를 보여주어 작품 전체에서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족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던 풍정 태탕한 심생이 한 중인처녀를 사랑하게 되지만 현실적 제약을 겪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사족의 일반적인 계층적 시각의 모순을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여주인공 처녀는 조선 후기 중·하층 여성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변화된 사회는 이들 계층의 의식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처녀의 유서 속에 곡진하게 밝혀져 있다. 처녀의 사랑을 통해 그녀의 진정을 엿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사랑이 실현 가능한 것이기를 원하는 작가 이옥의 지향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매화외사의 평에 이르면 행적부에서 보여준 서술자의 태도와는 달리 다소 엉뚱한 이야기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는 작품이 갖는 강렬한 메시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반 사족으로서의 의식적 한계 또는 양가적 질서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작가적 한계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소설 작가들이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당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흔히 쓰는 문학적 위장 장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극적 정조를 띤 애정소설은 대체로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주인공의 좌절된 사랑

이면에 놓인 사회 현실을 심각하게 반성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심생전>은 논찬부의 주제 왜곡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진정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진정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사회 현실을 고발한 작품이라 하겠다. 또한 적극적이고 강한 도전 의식을 지닌 여주인공과 변화된 남주인공의 내면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를 구현해 내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이 옥,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 『완역 이옥전집』5권, 휴머니스트, 2009.
____, 심경호 역, 『선생,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십시오』, 태학사, 2001.

2. 단행본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푸른역사, 2007.
권도경, 『조선후기 전기소설사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김수중,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석현 정규복박사 고회기념논총, 『한국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5.
소인호, 『고소설사의 전개와 서사문학』, 아세아문화사, 2001.
우리어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낭만성』, 국학자료원, 2002.
이동근, 『조선후기 전문학 연구』, 태학사, 1991.
정 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정출현 외, 『고전문학사의 라이벌』, 한겨레출판, 2006.
정하영, 『한국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아세아문화사, 200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소명출판, 2000.

2. 논문

- 김경선, 「이옥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균태, 「이옥의 문학사상연구」,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77.
- _____, 「이옥의 문학기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_____, 「이옥의 한시론고」, 『선청어문』 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78.
- , 「이옥의 봉성문여 연구」, 『역사민속학』,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 김동석, 「이옥의 매회외사의 비평과 그 서사적 의미」,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어문연구학회, 2006.
- 김동관, 「이옥의 전문학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미현, 「심생전의 서술시각과 작가의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상열, 「이옥의 전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영진, 「이옥 문학과 명청소품」,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학회, 2003.
- 김영주, 「문무자 이옥의 의식기저와 현실인식 태도」, 『동방한문학』 12, 동방한문학회, 1996.
- 김정애, 「조선후기 한문소설의 여성주인공 변모양상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진균, 「이옥의 작가적 자세와 탈중심적 글쓰기」, 『한문학보』, 우리한문학회, 2002.
- 김충복, 「이옥 소설연구」,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1882.
- 권순금, 「이옥 전의 시정세대 묘사와 풍자」, 『한문교육연구』, 한문교육학회, 2004.
- 류재일, 「이옥 시의 작품 성향연구」. 『열상고전연구』, 1995.
- 박성훈, 「이옥 전에 나타난 풍자연구」, 『한문학논집』 제 24집,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4.
- 박훈기, 「이옥의 심생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학사연구』 제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 소인호, 「이옥 전의 특성과 작가의식의 구현양상」, 『승실어문』16, 승실어문학회, 2000.
- 손병국, 「이옥 문학의 문학사적 의미」, 『온지논총』22, 온지학회, 2009.
- 신익철, 「이옥문학의 일상성과 사물인식」, 『한국실학연구』12, 한국실학학회, 2006.
- 신희경, 「심생전 연구」, 『돈암어문학』제 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 윤기홍, 「이옥의 문학과 문체연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90.
- 이상구, 「심생전의 인물형상과 작가의식」,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 _____, 「한·중 전기소설의 관계양상 및 그 특징」, 『고전문학연구』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 이신성, 「한문단편 심생의 연구」, 『어문학교육』, 한국어문교육학회, 1980.
- 이현우, 「이옥 문학에 있어서의 ‘진정’의 문제」, 한국한문학회, 1996.
- _____, 「이옥 소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이옥, 소외문인의 자아와 그 문학」,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06.
- 임유경, 「이옥의 열녀전 서술방식과 열 관념」,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95.
- 임정현, 「이옥 전 작품의 양식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옥치곤·김정호, 「이옥의 한문소설연구」, 진주산업대논문집, 1999,
- 전수연, 「심생전의 양식적 특성」, 『이화어문논집』9집, 한국어문연구소, 1987.
- 정병호, 「심생전의 서술방식과 의미지향」, 『문화전통론집』창간호, 1993.
- 정하영, 「심생전의 제재적 맥락과 사사방식」, 『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아세아 문화사, 2001.
- 조영신, 「이옥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여성의식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 최연희,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 최용순, 「이옥의 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한 매, 「이옥의 김성탄 수용」, 『한중인문과학연구』11, 중한인문학연구회, 2003.

허종진, 「이옥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수용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홍룡희, 「이옥의 전과 심생전 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